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Seoul Bible Graduate SchooL of Theology
총장 노왈수 박사 이사장 전충현 목사
[156-853]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동 632-57
http://www.sb.ac.kr / E-mail : bs0691@hanmail.net
Tel : 02)845-7711 Fax : 02)844-7711

지저스타임즈

아토피 · 건선 · 난치성피부질환전문
이든한의원
진료시간 오전 9:00~1:00 (점심시간 1:00~2:00) 오전 2:00~7:00 (토 · 공휴일 5시까지, 주말 휴진)
원장 송 창 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67번지 SK엠시티 드래곤플 2122호
TEL : 02)2264-8822 · 8833
FAX : 02)2264-8833

이사장 : 정기환 | 사장 : 소진우 | 발행 · 편집인 : 정기남 | 대표전화 : 032-672-3031
www.JTNTV.kr (인터넷 방송)
제68호 2013년 7월 7일 주일

제63주년 6 · 25를 맞이하여

"NLL 포기 발언은 장병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는 것"



홍재철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민족상잔의 비극인 6 · 25 전쟁 발발 63주년 맞이하여 민족의 아픔에 동참하며 위로하는 동시에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목숨 바친 순국선열들을 추모하며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분명한 것은 역사적 사실을 바로 알고 기억하는 것이 또 다른 비극을 막는 길이며,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는 것이 나라사랑과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된다는 것이다.

올해는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렇지만 북한은 여전히 미사일과 핵 실험 등으로 대한민국을 향한 도발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으며, '정전협정 백지화'와 같은 발언으로 전쟁 위기를 조성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우리는 남북이 아직 '정전(停戰)'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원인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더욱 굳건한 안보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Northern Limit Line, 북방한계선)' 관련 발언은 심각한 국론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기에 진실이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 국가 안보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연평해전, 서해교전, 천안함 사건 등 국토방위를 위해 피흘린 장병들을 생각한다면 NLL은 보다 견고하게 지켜야 할 우리의 방위선이며, NLL 포기 주장은 장병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는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최근 남북 당국 회담이 무산되고 남북간 대화국면이 다시금 냉각되고 있는 것에 우려하며, 속히 남북대화가 재개되기를 요청한다. 북한은 대화제의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고, 앞으로 진행될 남북 대화는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이라는 발전적 방향으로 전개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통해 양국 간 협력 체제를 견고히 다지는 기틀이 되었으며 외교 · 경제 ·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 방안들이 도출되어 미래지향적이며 우호적인 관계가 확대되는 데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화와 외교를 통하여 통일이 앞당겨 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평화로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한국경목총회 총회장 이상재 목사 선출

한국경목총회의 목적은 13만 경찰과 50만 가족들을 선교하는데...



신임총회장 이상재 목사

한국경목총회(이하-한경총)총회장 허 식 목사는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소재 함께하는교회(담임 이상재 목사)에서 오전 11시 제36차 정기총회를 갖고 단독후보로 나선 이상재 목사가 박수를 받는 가운데 한국경목총회 신임총회장에 선출됐다.

총무 홍항표 목사의 인도로 1부 예배에서 총회장 허 식 목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종순 목사(전 경찰청 실장)가 기도를, 양미상 목사(서기)가 성경(롬14:8)봉독하고, 우슬초 목사(복음가수)가 특송을, 엄신형 목사(전전총회장, 전기총회장)는"주를 위하여"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헌금송으로 청각인 지방성도 수화찬양과 조연기 목사(부총무)가 헌금기도를 한 후 조규성 목사(부회장)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대통령을 위한 기도를' 김창룡 목사(부회장)는 '경찰청장을 위한 기도를, 이창식 목사(부회장)가 ' 전국경목위원들과 사업을 위한 기도를 드렸다. 또한 이날 광명경찰서장 김종섭 총경의 환영사와 지왕철 목사(한기보협직전대표회장)의 축사에 이어 공로패증정 및 중앙경목위원 위촉이 있었으며, 총무 홍항표 목사의 광고 후 총회장 허 식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어 한경총 제36회 정기총회가 총회장 허 식 목사 사회로 진행되어 서기 양미상 목사의 회원점명과 개회선언, 회순채택 순으로 회무가 시작되고 임원선거에서 단독후보로 등록된 이상재 목사(함께하는교회)가 신임총회장에 당선되어 축도로 마쳤으며, 박한규 목사(지도고문)의 만찬기도가 있었다.

2면에서 계속=>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화정충현교회 성전헌당, 임직감사예배드려

신오식 원로장로 추대, 안수집사, 권사, 명예권사 임직식



담임 이효은 목사
화정충현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서서울노회는 지난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소재, 화정충현교회는 주님께 서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를 건축하고 헌당감사예배와 아울러 귀한 청지기를 세울 수 있는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렸다.

당회장 이효은 목사 인도로 신오식 장로가 기도 드렸으며, 서서울노회 증경노회장 박종태 목사(충인교회)는 벧전 4:7절을 중심으로"좋은 교회 좋은 일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신오식 장로의"성전건축결과보고"와 정종국 장로의 헌건사와 담임 이효은 목사의 수건사에 이어 헌당기도를 드린 후 화정충현교회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건축하여 헌당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전으로 오직 예배하며, 경건을 위하여 성별되게 할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했다.

이날 이효은 목사는 2부 임직식을 갖고 신오식 장로를 원로장로로 추대하고, 박석순, 김윤기, 사호정, 신동문 집사를 안수집사로, 한숙자, 김순정, 박화숙 집사를 권사로, 전숙자 권사를 명예권사로 공포했다.

이어 증경노회장 박종태 목사의 권면과, 박창복 장로(방주교회)가 축사를, 화정충현교회의 하모니카합주단의 축가연주가 있었다. 아울러 김홍렬 장로가 교회를 대표해 예물을 증정하고, 박석순 안수집사는 임직자를 대표해 교회에 선물을 증정했으며, 한숙자 권사가 권사를 대표해 담임목사에게 예물을 증정했다.

또한 이효은 목사는 교회를 설립한 후 33년 동안 헌신을 다해 교회를 섬겨온 송미순 공로전도사를 높이 치하하고 성도들의 박수를 받으며 특별감사패가 전달되고, 서호정 안수집사의 답사와 김홍렬 장로의 광고가 있은 후 담임 이효은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날 이효은 목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면서 모두가 받은 감동이 방전되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으며, 처음사랑에 젖어 더 많은 은혜로 충만하여 새롭게 허락하신 성전에서 예배성공, 가정경건, 교회부흥의 열매를 맺는데 힘쓰며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교회로 거듭나자며 다짐했다.

한편 이효은 목사는 본지 신문방송 부이사장과 본 신문방송언론부흥사협의회 총재를 맡고 있다.

사)한보협, 6 · 25상기 북한정세 세미나 가져



이범성 목사
한보협 대표회장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이하-한보협, 대표회장 이범성 목사)는 지난 6월 24일(월)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연지동 여전도회관 2층 김마리아 기념관에서 각 교단장들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3주년 6 · 25 상기 기념예배 및 북한정세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상임회장 박동호 목사의 진행으로 6.25 상기 기념예배가 시작되어 김 암 목사(법인이사)가 기도를, 오현관 목사(대한예수교오순절성회)는 요나서 1:1~6절을 봉독하고, 이의근 목사(기독교대한자유감리회 감독)가"국가 안정과 통일을 위하여" 송춘길 목사(예장, 합동근본총회)는 "한보협 발전과 제10차 WCC부산총회 개최를 반대 한다"는 등 눈물로 간구하며 특별기도에 나섰다.

이날 권다윗 목사(국제다문화선교총회 총회장)를 초청"자는 자여 어쩜이뇨"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울러 "목회적 안보와 관점"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목회적 안보에 대해서 권 목사는 '안보적인 문제는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핵심은 아무리 정치적으로 정치를 잘하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론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어서 발포한다고 하지만 절대 발포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6자회담을 통해서 핵억제를 한다지만 결국 남북 당사자만이 핵억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총무 김규훈 목사(예장, 합동보수총회)가 헌금기도를, 대표회장 이범성 목사의 인사말씀과, 서기 송춘길 목사의 광고가 있은 후 상임고문 지왕철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한보협 대표회장 이범성 목사는 인사를 통해서 'WCC는 종교다원주의요, 종교혼합주의로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부인하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성령을 인간의 혼과 같다며 성령을 부인하는 반 기독교적인 단체이며 WCC는 동성연애, 동성혼인을 주장하는 단체라고 했다.

또한 WCC는 용공주의와 좌파게릴라를 지원하는 단체인데, 이런 단체가 세계교회협의회라는 이름으로 1948년에 태동했다면서 이러한 WCC 단체가 한국 부산에서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10일 동안 총회가 열리는데, 보수교단협의회는 WCC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탄의 집단인 이들을 저지하기 위하여 지금껏 많은 투쟁을 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보협은 뜻을 같이하는 각 단체들과 연대하여 투쟁해 나아갈 것을 천명했다.

한보협은 7월 1일 명성교회(WCC 준비 상임위원장 김삼환 목사) 앞에서 WCC 부산총회를 적극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걸고 구호를 위치며 시위했다. 이 대표회장은 서부교회가 WCC 운동을 하다가 결국 망했으며 교회들이 문을 닫았는데, 이처럼 WCC가 한국에서 개최된다면 우리 한국 교회들 역시 서부교회들처럼 될 것이라며 가슴을 치며 우려하고, 보수를 지향하는 한보협은 일사각오로 WCC 부산총회 개최를 끝까지 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WCC가 한국 교회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우리 한국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일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하고 매일같이 기도해 줄 것을 호소했다.



사설

국민들은 분노한다! 노무현의 반역행위를...

언제까지 종북세력과 친북좌파들은 노무현의 반역행위를 정당하다 할 것인가?

아~ 노무현의 반역행위, 이를 추종하는 종북세력들과 친북좌파들, 그들은 지금 국정원죽이기와 현 정부를 말살하려는 음모가 식을 줄 모르고 있어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노무현 - 김정일이 나눈 비밀대화록 103쪽이 남재준 국정원장의 결단으로 만천하에 공개됐다. 그 판도라상자에는 온갖 가관들로 가득 차 있었다. 김정일에 대해서는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체신조차 팽개치고, 칙칙하게 찐득거리며 애걸복걸, 대화 좀 더 하게 시간 좀 내달라, 자주 좀 불러 달라 매달렸다.

서해의 영토 일부를 인천 앞바다까지 상납하겠다는 신하의 자세로 주청했고, 100조에 이른다는 국고를 북에 바치겠다며 자청했다. 자신은 일일 60억 원을 쏟아 부우면서 50여 개국을 다니며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때마다 낯을 붉혀가면서까지 당신(김정일)의 변호인이자 대변인 역할을 했고, 보기 싫은 미군을 서울에서 추방했으며, 미군이 작성한 작계 5029를 폐기시켰으니 저도(노무현) 할 만큼 한 게 아니겠습니까? 인정해 주시라 읍소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세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했다. 여기 이 문서는 제가 남조선 장관들로부터 받은 비밀보고서인데 위원장께서 심심할 때 보시도록 드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 문서는 국가기밀 문서! 노골적인 역적질을 한 문서이다. 이 역적행의, NLL 영토 일부를 북에 바치겠다고 충성 맹세한 행위, 적장과 함께 힘을 합쳐 미국을 몰아내려 한 행위, 북핵을 정당화시킨 행위 등을 종합하면 이적죄보다 100배 더 무서운 여적죄가 된다.

여적죄에는 형량이 사형 하나밖에 없다. 온 국민이 가슴을 치며 분노하는 이 순간!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비밀을 누설했다며 국정원장을 국기문란 죄로 걸어넣겠다며 기염 토하는 이적 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때 우리 국민들은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한다.

친북좌파세력들, 종북세력들은 63주년을 맞은 6 · 25 상기 집회에도 그 누구도 얼굴을 내미는 자가 없으며, 자신들의 행위가 민족 앞에 반역행위임에도 반성의 여지도 없이 국가정보원 국정원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국민을 위한 정치는 안중에도 없지 않는가? 오직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무서운 세력들의 반역행위와 음모를 바로 깨달아 반드시 응징해야 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깨어나야 한다.

그동안 국정원은 대화록을 2권 생산했다. 1/2(2권 중 제1권)는 국정원에, 2/2는 청와대로 간 것이다. 청와대가 배부선에 불과했던 것이다. 비밀의 해지권한은 1/2본을 보관하고 있는 문건 생산기관장인 국정원장에 있다. 이를 놓고 직권남용이라 할 수는 없다. 국가기록원 성남창고에 있다는 2/2본 역시 이에 맞춰 등급 해제가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남북대화록은 우리 국민 앞에 낱낱이 모두가 즉시 공개돼야 한다. 이는 속히 입법화돼야 할 시급한 일이다.

제36회 한국경목총회

제36회 한국경목총회 신임원은

증경총회장 조용목, 엄신형 목사, 직전총회장 허 식 목사, 총회장 이상재 목사, 부회장 김종순, 이정춘, 김창룡, 이창식, 유철규, 김길수, 남규열, 강년섭, 조규성, 김옥환, 임기석, 박동호, 주광삼 목사

총무 홍항표 목사, 부총무 조연기 목사, 협동총무 박용숙, 임해숙 목사, 서 기 박양우 목사, 부서기 전남호 목사, 회계 양미상 목사, 부회계 정운선 목사, 회록서기 오성규 목사, 회록부서기 최화목 목사, 감사 이효은, 홍철표 목사, 지도고문 박한규, 지왕철, 환원찬, 권다윗 목사 등이다.

신임총회장 이상재 목사(광명함께하는교회)는 소신을 갖고 경찰선교에 힘쓰겠다고 했다. 타 지역에서 오랜 경목의 경험과 검찰청 법죄 예방을 위하여 선교를 해 왔던 경험을 살려 한경총을 이끌어 갈 것이며, 대한민국 13만 경찰과 60만 가족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경찰복음화와 선교를 위하여 힘쓰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이 총회장은 또 경찰선교를 위하여 힘을 모아야 할 이때 한국경목총회와 교경중앙협의회가 선교



목적이 하나라고 한다면 서로가 양보하고 밥 그릇싸움 감투싸움 다 내려놓을 의양만 있다면 총회장을 당장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또한 총회장 이상재 목사는 한국경목총회 산하 지방청과 경찰서가 많이 있는데 심지어 어느 지역은 한국경목총회를 모르고 있고, 경목위원들조차도 한경총을 모른다면서 앞으로 이점을 임원들과 논의를 해서 한경총의 존재를 알리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경총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더 많은 회원 영입과 모이기를 힘쓰고 한경총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이상재 신임총회장의 소신이다.

또한 이 총회장은 WCC 부산총회는 받아드릴 수 없다면서, 진리 안에서는 얼마든지 받아드릴 수 있지만 비 진리는 받아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경총은 선교가 목적이기 때문에 한기총과 한교연처럼 정치가 목적이 아니라면서 만일 WCC 부산총회를 지지한다거나 정치를 원한다면 한국경목총회와는 성격이 다르다. 그런 사람은 그곳으로 가면 된다면서 한국경목총회는 선교가 목적이라고 했다.

한경총 제36-1차 임원회 열어 단합을 다짐

한편 한국경목총회(총회장 이상재 목사)는 지난 6월 24일(월)오전 12시 30분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여전도회관 2층 김마리아 기념관에서 한경총 제36-1차 임원회를 가졌으며, 위촉식과 신임원 임명식은 7월 4일 오전 11시 함께하는교회(총회장 이상재 목사)에서 갖는다고 했다. 아울러 하계수련회 준비위원 선임과 기타 안건 등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게 된다.

이날 총회장 이상재 목사 사회로 서기 박양우 목사의 기도로 임원회를 열고 자문위원들과 신임원의 상견례가 있었으며, 신임총회장 이상재 목사를 비롯해 임원진들이 일치단결하여 회기동안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한 안건토의가 있었으며, 총무 홍항표 목사의 광고가 있은 후 총회장 이상재 목사(함께하는교회) 축도로 마쳤다.



CTS기독교TV, 「300억 특별발전후원금」 모금방송



한국교회 부흥위한 153비전 선포

방송 이후에도 후원 기다려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는 한국교회 새로운 부흥을 위한 'CTS비전 153'을 실현하고자 6월 27일 하루 동안,「300억 특별발전후원금 모금방송」을 실시했다.

이번 모금방송에서 CTS는 뉴미디어 시대에 한국교회를 섬기기 위한 '비전 153'을 시청자들에게 선포하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후원참여와 중도기도를 요청했다.

비전 153은 ▲미디어 목회를 지원하는 '1만 교회 앱 무료 제작' ▲침체된 교회학교 부흥과 전도를 위한 '5천 교회학교 프로그램 개설' ▲미디어 선교 발전과 한국교회 섬김사업에 투자할 '3백억원 특별후원금 모금'을 뜻한다.

모금방송은 총 3부로 구성되었다. 1부는 'CTS, 순수복음방송',2부는 'CTS, 섬김과 나눔', 3부는 'CTS, 세계를 교구로'를 주제로 시청자들에게 소개되었다.

▲1부 'CTS, 순수복음방송'은 'CTS가 걸어온 길', 'CTS 비전 153', '나는 영상선교사입니다'로 구성되었으며, ▲2부 'CTS, 섬김과 나눔'은 'CTS의 섬김과 나눔', '교회학교 섬김' ▲3부 'CTS, 세계를 교구로'는 'CTS 24시', '선교사들을 위한 위성수신기 섬김', 'CTS 뉴미디어 사역 소개' 등의 내용을 전했다.

1-3부의 각 내용들은 CTS가 순수복음방송으로 섬겨온 역사부터 지금도 활발하게 이뤄지는 섬김과 나눔 사역, 앞으로의 비전을 알리는 내용까지 자세하게 다루었다.

또한 탤런트 박혜숙 집사,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 2012 미스코리아 진 이성혜 자매 등에게 CTS를 통해 얻은 은혜로운 간증을 들을수 있었으며, 윤석전 목사(연세중앙교회), 윤호균 목사(화광교회)는 CTS 방송사역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외에서 CTS를 통해 은혜 받는 성도들의 이야기도 다양하게 만날 수 있었다.

CTS 감경철 회장은"하나님이 주인 되신 CTS의 모든 필요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채워진다"며"CTS의「300억 특별발전후원금 모금」이 진행될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기적을 시청자와 함께 나누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300억 특별발전후원금 모금방송」은 방송 이후로도 CTS 홈페이지(www.cts.tv)에서 다시 볼 수 있다. 후원문의 02-6333-1111.

CTS 부흥성회, 쉬지 않는 예배와 기도로 뜨거웠다

감경철 회장은 매일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처소로 자리 잡길!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는 서울 노량진 본사 'CTS아트홀'에서 「CTS 부흥성회」를 가졌다. 이번 열린 성회는 침체된 한국교회에 예배의 새바람, 기도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자 CTS부흥협의회 주관으로 이루어졌으며,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부터 진행됐다. 강사는 CTS부흥협의회 총재 윤호균 목사(화광교회), 대표회장 윤보환 목사(영광교회)를 중심으로 매일 새로운 목회자가 초청되어, 은혜로운 말씀과 영성 깊은 기도로 진행되었다. 지난 24일 첫 날 집회를 이끈 윤호균 목사는"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한 CTS는, 앞으로 더욱 효과적인 뉴미디어를 통해 한국교회 새로운 부흥을 이끌어 갈 것"이라며 CTS의 영상선교 사역을 격려했다.

CTS 감경철 회장은'최근 기도원이 사라져가는 현실'을 지적하며,"도심 속의 CTS가 영상성전으로서, 매일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처소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했다.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기독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고문: 피종진목사 이사장: 정기환목사 사장: 소진우목사 발행인: 정기남목사

전국 23개 지사 / 해외 27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574-10 대운빌라 1층 제202호
▶E-mail : jtpress@hanmail.net
▶전화 : 032) 672-3031(팩스겸용) ▶직통 : 070) 8230-0034
▶H.P : 010) 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0,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670-110405-00108 / 농협 455030-56-005509

반석교회 박종만, 김순애 부부 목사임직 받아

진리 안에서 말씀의 우물을 깊이 파라

박종만, 김순애 강도사(부부)는 지난 6일 인천 남동구 만수동 소재에 부부가 개척한 반석교회에서 나란히 목사임직을 받았다. 박종만 김순애 부부는 에하드 총회산하 신학을 했다.

김순애 강도사가 먼저 사역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두 자녀 중 한 자녀를 먼저 하나님 품으로 보내야 했고, 건강했던 남편(박종만)이 질병으로 세상일을 다 포기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의 길을 택했으며, 부인과 함께 만수동에 반석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이날 부부가 목사 임직을 받았다.

총회장 김명애 목사는"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창26:17-22)이란 설교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김옥희 목사가 권면을, 정광순 목사는 격려사를, 나겸일 목사의 축사가 있었다.



이날 안수위원은 최명애 총회장(에하드 신학교 총장, 형통한 교회), 김옥희 목사(내리 쉼터 기도원), 여영숙 목사(에하드 노회장), 정광순 목사(금빛교회), 정경근 목사(빛과 소금교회), 최병연 목사(총회 서기), 김옥련 목사(미문교회)가 맡았다.

인천지사 곽영민 기자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천성서수련원)

원로목사 이철재 감독

담임목사 이정민

생명의 양식 "주는 영어시나 주의 영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3장 17절)

예 배 안 내	요 일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주 일	오전 11:00	본당 (2층)
찬양 예배	주 일	오후 3:00	이천 수련원
유치부 예배	주 일	오후 1:30	기도실
초등부 예배	주 일	오후 1:30	본당 (2층)
중 · 고등부 예배	주 일	오전 9:00	지하 성전
청년대학부 예배	토요일	오후 6:30	지하 성전
스페인어 예배	주 일	오후 1:30	지하 성전
새벽 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5:00	지하 성전
수요 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지하 성전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 성전
2시 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련원(이천 031-634-3590)
부설 : 새생명어린이집 (02-464-3107

성령의 불길로 세계와 민족을 변하시키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서교회
KYOUNG SEO PRESBYTERIAN CHURCH SINCE 1982

지나온 30년 그리고 또 다른 한 걸음

2013 축복의 해 함께 웃고
함께 우는 행복한 우리

당회장 홍재철 목사

홍성익 협동목사

- 시무장로
백인관 장로, 고현 장로, 임선복 장로, 김남국 장로, 박정욱 장로, 조재원 장로, 권기원 장로, 신동률 장로, 한남규 장로, 기노화 장로, 안연각 장로, 진명선 장로, 손창호 장로, 정인 장로, 박재경 장로, 류제화 장로, 김남수 장로, 김봉석 장로, 김도현 장로, 한재광 장로, 이수동 장로
- 명예장로
김중순 장로, 이인천 장로
- 할렐루야성가대
음악국장 : 박정욱 장로 반주자 : 김성은
오르간 : 성희로
성가대장 : 박정욱 장로
총 무 : 김철호 경조부장 : 김남덕
상임지휘자 : 한이경 권사
부총무 : 김준기, 신봉진
악보장 : 류재성, 김병선, 백종부
파트장 : s : 송희숙 A : 송영순 T : 김한수 B : 조봉제

● 예배시간안내

부 서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1부	주일오전 7시	슬로몬성전(B1층)
	2부	주일오전 9시	에루살렘성전 (3층)
	3부	주일오전 11시30분	
	4부	주일오후 3시	
수요 예배	수요일 저녁 7시		슬로몬성전(B1층)
금요 철야	금요일 저녁 8시30분		에루살렘대성전(3층)
새벽기도	매일 새벽 5시		슬로몬성전(B1층)
경서 기도학교	영아부	주일오전 9시	벧엘에집(4층)
	유치부		가브리엘(B1층)
	유년부		사랑에집(B1층)
	초등부		소망에집(B1층)
	소년부		믿음에집(B1층)
청소년부	제1청소년부	주일오전 9시	슬로몬성전(B1층)
	제2청소년부		비전 이카데미(2층)
주일 전3예배	청년국	주일오전 11시30분	슬로몬성전
		주일오후1시30분(찬양예배)	

● (421-804)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61번지
● 전화 : 032) 684-8241-5 Fax : 032) 684-8240 ● http://www.kyoungseo.org

대한예수교 장로회 향기로운교회
HYANGGIROUN CHURCH



표어 이 전의 더 큰 영광을 보리라(학2:7)

담임목사 정일량 유성은

섬기는 분들

전임전도사 : 이귀선(샤론) 전도사 : 헵시바
선교사 : 전승주, 손호자(태국치앙마이)
장로 : 최문호 , 유봉철
안수집사 : 손경현. 배하성, 정대봉
성가대장 : 정대봉
성가지휘 : 이용경
피아노 : 배민지 신디 : 김인영
드럼 : 유혜란 김효정

예배시간 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09:30
2부 찬양예배 오후 1:30 청년1,2팀예배 오전 09:30
사랑 애찬 교제의시간 주일학교예배 오전 09:30
수요기도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목
영락원예배 오전 9:00 1일월삭 예배 오전 05:00
목요치유예배 오후 7:30 1기 제자교육 월화금요반

홈페이지 http://hgioun.onmam.com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502-1 향기로운빌딩 9층
☎ 032)814-7720, 팩스 032)714-3131, 010)4274-3330

기적의 치유집회

강사 박 수 영 목사

- 행복샘전인치유센타원장
-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 강사단장
- 경북대학교병원교회원목위원
- 지저스타임즈 대구지사장
- 동부노회 노회장
- 행복샘교회 담임목사

집회 고침받은 내용

☆ 최병옥 : 심장병으로 숨막히고 쥐어짜는 고통에서 고침받음
☆ 류정호 : 만성변비로 가야기독대학병원에서 퇴원 장례준비중 고침
☆ 김소영 : 류머티즘관절 평생지병 집회중 선포 기도로 고침받음
☆ 남영수 : 재생불량성빈혈 경대병원 매주 수혈받으며 투병하다 고침
☆ 김영자 : 만성두통과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고침 받음
☆ 박수영 : 30년동안 피부병으로 고통받다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간증
☆ 강복희 : 뇌경색으로 왼쪽 전신 마비되어 투병하다 집회중 고침받음
☆ 김복자 : 고혈압 20년 지병 정상으로 고침 받음

♧ 예 배 시 간 안 내 ♧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예배 오후 7: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치유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9:00 새벽 기도회 오전 5:00
청소년부예배 오후 2:00 중보기도모임 매일 8:00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샘교회
대구광역시 동구 송라로 100-18(신천동)
☎ 053-752-8238 010-8537-8291

제63회 6·25 상기 연합예배


이사장 양정섭 목사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 이사장 양정섭 목사와, 사단법인 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 박형렬 목사와 사단법인 세계개혁교회연합회 총재 김권현 목사가 연합하여, 제63회 6.25 상기연합예배를, 24일 종로구 연지동 여전도회관 루이시기념관에서 가입교단 임원 및 회원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

이날 연합예배는 사단법인 세계개혁교회연합회 총재 김권현 목사의 사회로 신앙고백한 후 찬송가 390장을 합창하고, 사단법인 세계개혁교회 상임부총재 노종관 목사의 기도에 이어, 21세기 성령총회 총회장 강매환 목사의 로마서 8:3-9을 봉독하고 개혁중창단의 찬양에 이어, 사단법인 한국개신교교단 협의회 대표회장 박형렬 목사의 기독애국심과 바른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다시는 이 나라에 6.25와 같은 전쟁과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되며 6.25 남침의 전쟁을 잊어가는 것이 안타깝고 공산주의에 대하여 철저히 반공교육이 필요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여야 하며 특별히 W.C.C 반대운동에 앞장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데 앞장서기를 강조했다.

이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사단법인 세계개혁교단연합회 대표회장 최옥석 목사가 기도하고,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와 사단법인 세계개혁교회연합회와 사단법인 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 3개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총회장 정광용 목사가 기도하고, 일본회개촉구와 우리 땅 독도지키기를 위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연합총회 총회장 이상복 목사가 기도하고, 복음으로 남북통일을 위하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정통연합총회 총회장 임훈정 목사의 기도와 찬송가 384장을 합창하고, 이어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 이사장 양정섭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에 W.C.C가 발을 부치지 못하게 하고 모든 가입교단은 W.C.C 부산총회를 반대하는데 앞장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통신앙을 이어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오직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며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용공주의를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3개 단체가 보수주의에 앞장서 나가자고 하였고,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총회장 강희준 목사가 광고를 한 후, 찬송가 382장을 합창하고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 이사장 양정섭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영훈교회 추대 및 위임예배 드려

이석용 목사 성역 46년, 영훈교회 원로목사 추대, 황진섭 목사 위임



대한예수교장로회 영훈교회는 지난 9일(주일)오후 4시 성역 46년의 사역을 맞이한 이석용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황진섭 목사를 위임목사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임직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1부 임직감사예배는 박성주 목사(서울노회 서기)의 인도로 김용희 목사(서울중앙교회)가 기도를, 류광규 목사(예광교회)가 성경 마6:10절을 봉독하고 호산나성가대의 찬양이 있었다.

설교에 나선 김동우 목사(서울노회장, 위임국장)는"주님의 뜻을 이루는 리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김브라이언(찬양사역자), 영훈교회 출신 목회자 10여명이 특별찬양을 하고, 서울노회장 김동우 목사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김동우 목사(서울노회장, 위임국장)의 사회로 이석용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황진섭 목사를 위임목사로 공포했다.



이어 김종길 목사(증경노회장, 병방중앙교회)의 권면과 변영식 목사(증경노회장,성북제일교회)의 축사가 있었으며, 김동우 목사(위임국장)는 황진섭 위임목사에게 위임패를 증정했다.

이날 영훈교회 황진섭 위임목사의 사회로 3부 임직 및 은퇴식이 거행되어 박삼암, 이철훈 장로를 은퇴장로로 소개한 후 축복기도를 했다. 이어 신금훈, 이영수씨를 장로로 서약하고 공포했으며, 김해자, 노영미, 박경순, 박춘자, 신정애, 이승분, 이효숙, 임미자, 왕순이 최향준 등을 권사로 공포했으며 임직패증정이 있었다. 또한 예장전국장로회에서 신금훈, 이영수 장로에게 장로패를 증정했다.

이어서 소진우 목사(예복교회, 지저스타임즈 사장)가 임직자들에게, 이석복 목사(주양교회)가 교인들에게 권면했다. 아울러 김백수 목사(증경총회장, 청목회), 이석우 목사(늘푸른진건교회), 유영현 목사(성령교회)가 축사를, 최용석 목사(검단사랑의교회), 정군식 목사(행복나눔교회), 강민규 목사(좋은나무교회)가 격려사를, 신금훈 장로(영훈교회)가 답사를, 최임봉 장로(준비위원장)의 공고 및 인사가 있은 후 노희중 목사(대명성교교회, 중부 시찰장)의 마무리 기도로 마쳤다.

본사 2013년 제3차 이사회 대전에서 열어

23개 지사가 구독자 확보와 광고수주에 힘써 줄 것과 언론부흥사협은 매월 집회를 통해 지역복음화에 힘쓸 것을 다짐



지저스타임즈 JTNTV방송은 지난달 2013년 제3차 이사회를 대전 유성구 대학로 느티나무식당에서 가졌으며 이번 이사회는 본지 중구권지사(지사장 박양우 목사), 상임이사 서영웅 목사(퓨리탄대학 총장)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본사 사무국장 곽영민 목사(등불교회) 인도로 1부 예배가 진행되어 상임이사 서영웅 목사의 기도와 인도자의 성경봉독(살후 2:1~8절), 운영이사 유윤주 목사(조에교정선교회)의 특송이 있었다.

이어 상임이사 장한국 목사(주사랑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배도의 역사"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장한국 목사는 "주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 핵심적이면서 체계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여 참석한 이사들로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다.

대구지사장 박수영 목사(행복샘교회)가 봉헌기도를, 본사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언론부흥사협대표회장)의 인사에서 본지 이사장 정기환 목사가 5월29일부터 6월16일까지 캐나다, 미국,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보츠와나, 케냐 남수단 등 아프리카 지도자 컨퍼런스 강사로 출국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많은 기도를 부탁했다. 또한 신문사 현황과 JTNTV 방송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본사 발전을 위하여 신문구독자 확보를 위하여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사회부부장 임요한 목사는 신문 방송을 위하여, 실무회장 전진성 목사는 27개국 해외 지사를 위하여, 운영회장 김부경 목사가 전국 23개 지사를 위하여 특별기도회를 드린 후 본사 사장 소진우 목사(예복교회담임)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이사회는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의 사회로 본사의 발전과 국내외의 운영을 위하여 안건토의를 가졌으며, 각 지사가 구독자 확보와 광고 수주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3부 언론부흥사협의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모이기를 힘쓰며, 총재 이효은 목사(화정충현교회)를 중심으로 매월 첫 주간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은총기도원(원장 주은총 목사)에서 부흥집회를 갖는다고 전하고 전국 지사를 주축으로 부흥집회를 열어간다면서 지역복음화를 위하여 언론부흥사협의회가 앞장서자며 주문했다. 7월 하순 신문방송이사회 및 언론부흥사협의회는 이사장 정기환 목사(전원중앙교회에서 가질 예정이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표어: 창세로부터 주님 재림시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혼을 구하는 교회

담임 조강수 목사

■ 예배시간 안내 ■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새 벽 예 배	오전 4: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감발달예배)	오후 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6:30	학 생 부 예배	오후 4:30(토)
수 요 예 배	오후 8:00	청 년 부 예배	오후 7:00(토)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 부 목 사 : 이주홍
· 협력선교사 : 김종록, 서승학, 차명호, 권오성
· 장 로 : 임청수, 김성기, 이청옥, 심재현, 김준현, 고재훈
· 명예 장로 : 곽형희
· 심방전도사 : 원명숙
· 교육전도사 : 양승숙, 이민규, 전윤구
· 성가 대장 : 박남희
· 지 휘 : 조은총, 박한솔
· 반 주 : 권혜영, 홍은지, 박진주, 이요한

인천 서구 가좌동 4-24 Tel) 032-575-1654 Fax)032-581-3723 http://www.youngkwang.net

표어 :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당회장 정대성 목사


담임 임찬미 목사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
행함으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남복된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205-18 ☎ 070-7443-7277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표어 : 새 천년을 새 소망으로 새롭게

2013년도 목표 : "온 세상을 진리의 빛으로"


담임 장한국 목사
본지 상임이사

·선교사 : 김경자 ·전도사 : 장성철,
·강도사 : 장정훈 이진영, ·반주자 : 한진경, 한송이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금촛대교회
건강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갖게 하는 살아있는 교회
선교에 중점을 두는 교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예배시간안내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주일 대 예배	낮 11시	주일학교	오전 9시
주일저녁예배	오후 2시	학생회	토,오후 5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30분	청년회	토,오후 6시
새 벽 예 배	새벽 5시	여전도구역예배	금,낮 11시
금요철야예배	밤 9시	남전도구역예배	매월토,저녁 6시

(우 473-080)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7층
☎031)424-7612(교) H.P 010-4436-7060
홈페이지 : http://jlcn.kr

대한예수교 장로회 화정충현교회


당회장 이효은 목사
(지저스타임즈부흥사협의회 총재)

화정교회는 말씀이 좋고,
행복한 교회로
가정을 귀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2013표어
"사랑으로, 기쁨으로, 열정으로 섬기며 전도하여 갈수록 더 좋아지고 더욱 아름답게 하소서"

시무장로 : 신오식, 정종국, 김홍령

늘 노래하는 자는 무병장수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는 자는 영적으로 무병장수합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시편9:11)

"나도 잘되고 자손도 잘되자"
1.예배의 삶의 초점 맞추고 전도하라.
2.온전한 십일조와 감사로 물들라.
3.부모공경으로 효를 다하여라.
4.봉사, 섬김으로 복을 쌓아가라.

예배시간
주일오전예배 : 오전11시
주일오후예배 : 오후 2시
수요예배 : 오후 7시30분
금요기도회 : 밤 9시
새벽기도회 : 새벽 5시 (주일~금요일)
유-초등부 : 오전 9시
중-고등부 : 오전 9시
청년부 : 오후 3시30분

찾아오시는 길
〈도시형버스〉
1 중산 ↔ 화정 85-1 고양동 ↔ 송정전철역
850 고양동 ↔ 행신역
706 교하 ↔ 서울역 7728 대화동 ↔ 신촌
82 내유동 ↔ 영등포 1900 본일산 ↔ 서울역
〈시외버스〉 3700 의정부 ↔ 인천
〈좌석버스〉
85 고양동 ↔ 김포공항 800 내유동 ↔ 신촌
9701 가좌동 ↔ 영동 9713 본일산 ↔ 서울역
〈직행좌석〉
〈마을버스〉 6, 6-1, 6-4
〈지하철〉
3호선 화정역 3번출구 (도보 8분거리)

주소 : 412-82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38번길 27(화정동)
교회(031) 966-0015 (FAX겸용) 자택 (031) 965-7682

구로교구협의회 63주년 6.25전쟁 상기 특별기도회



서울구로교구협의회(대표회장 김길진 목사)는 6월23일 주일오후 3시30분,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346(개봉동 170-18) 남현교회(담임 이춘복 목사)본당에서 제63주년 6.25전쟁 상기특별기도 예배를 드렸다.

진행위원장 김수정 목사(사무총장)의 진행으로 예배가 시작되어 이성용 목사(대회총무)가 기도를, 성경봉독(벧전 3:8~12절) 오영석 집사(신우회장), 남현교회 '하늘나라소리단'의 찬양으로 김성현 목사(지도위원)는"미래가 잘 되려면!"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회계 남경희 목사가 헌금기도를, 공동회장 이성구 청장의 인사말씀과 수석부회장 이춘복 목사(남현교회)의 환영사가 있었다. 아울러 구로갑 국회의원 이인영 집사, 구로을 국회의원 박영선 집사의 6.25의 교훈을 전하고, 교경회장 김문겸 목사, 부회장 조종환 목사가 격려사를, 특별기도순서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찬양위원장 장창윤 목사(웨신,부총회장), 한국교회 및 복음으로 통일 및 북한 동포를 위하여 서기 전 철 목사, 구로구청의 발전과 구민들 삶의 향상과 구청장을 위하여 기획경제국장 최동국 권사가, 63주년 6.25사변과 국가안보와 4대악근절을 위하여 경찰신우회장 최성규 집사 등이 각각 기도했다.

이어 진행위원장 김수정 목사의 광고 및 내빈소개가 있었으며, 고문 권처명 목사 축도로 마쳤다.

한편 제63주년 6.25상기 특별기도회는 서울 구로구청 교구협의회 주최로 이루어졌으며, 구로구청신우회, 연희미용고등학교, 남현교회, 초운교회, 성문교회, 구로동감리교회, 오류동성결회, 오류동감리교회, 베다니교회, 서남교회, 21세기드림교회, 남도교회, 구로경찰서신우회 등이 후원했다.

포항교도소 교정위원 간담회 열어

김태훈 범무부 교정본부장, 교화를 위해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당부



법무부 교정본부(김태훈 교정본부장)는 지난 20일 오후 6시 30분 포항교도소 교정위원 간담회를 포항 필립스호텔에서 가졌다. 김태훈 교정본부장은 포항교도소의 직원들과 교정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교정정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했다.

특히 김태훈 교정본부장은 간담회의 참석한 교화위원들에게'앞으로도 수용자들의 교화를 위해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당부'했다. 이날 교화활동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포항교도소 수용자 어울림 합창단지도 선생인 김예린 교정의원의 발표가 있었다.

김 교정위원(포항서림교회권사)은 수용자들로 구성된 어울림 합창단을 지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합창단 모집을 위한 첫 오디션 당시 어색하고 긴장되던 모습들이 어렴풋이 기억나고, 무척이나 긴장하였던 단원들이 연습을 통해 인성이 변하고 서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며 합창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행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원들은 합창을 통해 사랑을 알아가고 가정의 중요성을 발견하면서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마음을 가진 모습들을 볼 때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가 낳은 결과가 수형자라면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하는 마음이 이들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 했다.

포항교도소 수용자 어울림 합창단은 2013년 1월 30일에 제 1 회 전국 수형자 합창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하였다. 현재 법무부 교정본부에서는 교정위원 전문화를 위해 제 3기의 교육을 각 교정청에서 실시하고 있다.

포항지사장 이기학 기자

한국교회의 미래, 생명 돈 성 환경 등 윤리문제에 적극 대처하기로

미래목회포럼 2013, 한국교회 리더십콘퍼런스에서



미래목회포럼(대표 오정호 목사)이 출범 10주년을 맞아 교단을 대표하는 중견목회자들과 차세대 목회자, 교계지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13, 한국교회 콘퍼런스를 제주 성안교회(담임 류정길 목사)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윤리로 무장하라'는 주제로 2박 3일간 개최되었다.

콘퍼런스 개회예배는 김희수 목사(구리성광교회)의 사회로 '파수꾼입니까'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한 포럼 대표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는"한국교회는 혼돈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며"한국교회의 방향은 건강한 교회를 위한 개혁운동이며, 개혁운동의 핵심은 교회 지도자의 철저한 자기개혁과 이를 위한 제도적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포럼이사장 정성진 목사(거룩한 빛 광성교회)는"콘퍼런스를 통하여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 개혁과 성숙의 미래비전을 심장에 새기며, 미래교회의 방향성을 한국교회와 함께 공유하고 싶다"고 환영인사를 전했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윤리로 무장하라'는 주제포럼에서는 이상원 교수(총신대)는"목회자라면 돈과 성, 명예라는 세 개의 영역에서 평신도들보다 윤리적 수준이 월등히 앞장서야 한다"며"생명윤리, 돈 윤리, 성윤리, 환경윤리에서 제기되는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대체로 목회자들이 충분한 정보가 부족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상태에 있다"며"동성애는 성경이 신약과 구약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비정상적이고 죄악된 성습관으로 가르치고 있고, 보편적인 도덕 감정과도 조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도 비정상적인 성적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차별금지법 안에 동성애 항목을 집어넣어서 법제화하려는 집요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법안의 문제점은 동성애를 이성애와 더불어 정상적인 성적 관습으로 규정하므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우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가오는 미래사회에 전인적인 목회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목회자 자신들이 윤리적인 분석과 비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과 훈련과 철저한 공부가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촉구했다.

양혁승 교수(연세대)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이상원 교수(총신대), 문시영 교수(남서울대), 이장형 교수(백석대) ,엄창섭 박사(고려대) 등이 나서 성경적 윤리와 최근 고교 도덕교과서의 동성애 조장사안에 대해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하여 시정을 촉구하기로 하고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매년 열리는 한국교회 리더십콘퍼런스는 차세대 및 중견목회자와 각계 전문가 등이 대거참여하며 해를 거듭할수록 연륜을 더하여 한국교회의 이슈진단, 연합과 일치, 대안 모색 등으로 향후 한국교회의 방향성 설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싱크탱크가 될 것으로 주목된다.

미래목회포럼은 2003년 12개 교단 300여명의 목회자와 33여명의 각계 정책 자문위원들로 구성돼 지난 10년동안 한국교회의 싱크탱크 역할을 감당하며 한국사회와 교회현안 연구, 모니터링 및 학술활동을 전개하고 정기포럼과 콘퍼런스 등을 매년 가져 왔으며, 금년 8월 30일 프레스센터에서 한, 중, 일 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동북아평화와 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20차 정기포럼을 개최한다.

원불교 국제마음훈련원 건립 무산

익산시의회, 교계 반발로 지난 연말에 이어 이번에도 예산지원 부결



익산시의회가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불교 100주년 기념 국제마음훈련원 건립을 위한 8억원의 예산지원을 시도했다가 상정이 안돼 자동 무산된 데 이어 이번에도 추경예산에 편성해 지원하려다 실패했다.

익산시의회는 24일 예결산위원회를 열어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 2013년도 지원 예산 5억원을 원불교 국제마음훈련원 건립예산으로 편성해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익산시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평사회시민모임(이하 공사모, 실무위원장 이병진 목사)의 강력한 반대운동으로 결국 추경예산에서 제외했다. 시의회 예결산위원회는 '국제마음훈련원 지원 예산 심의'를 한 후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7명 중 4명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이 목사는 "시민의 혈세로 월불교 100주년 기념 국제마음훈련원 건립 100만명을 포교하려는 일에 정부와 익산시가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공사모는 반대운동을 전개하면서 익산시민 20500명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 의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공사모는 또 인구 30만 2천명의 익산시의 채무액에 대해서도 경상일반재원 4321억원, 관리채무액 3124억 원, 관리채무 부담도가 72.3퍼센트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민간투자사업(BTL) 부채 491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국제마음훈련원 건립에 익산시의 예산지원 철회를 거듭 요구해 왔다.

공사모는 이와 함께 익산시와 원불교의 유착관계를 지적하며 예산지원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원불교는 국비를 잘 사용하는 대표적인 전문교단이다. 익산시에서만 수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이 26개,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에 25억원, 익산유스호스텔 건립에 142억원을 지원받아 건립했고, 이번에는 국제마음훈련원 건립에도 예산지원을 하려고 한다"며 반발해왔다.

은총 기도원



원장 주은총 목사

매월 3째주 (월-목) 정기 성회
매일 밤 10시 기도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세요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 2동 486-27(2층)
☎ : 010-6327-0191, 070-7518-0195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라!"
심령부흥 성회



대표회장 곽영민 목사
◆ 예장(백석) 인천노회 소속
◆ 등불교회 담임
◆ 예수능력치유센터 원장
◆ 에녹부흥사관학교 대표(인천)부흥사연수원장
◆ 지저스타임즈부흥사협의회 사무국장
◆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
◆ 지저스타임즈 인천지사장 /본사 사무국장

대한예수교장로회 등불교회 . 예수능력치유센터
"부흥회 및 부흥사 연수 요청"
http://kmission.onmam.com / cafe.daum.net/kmission
☎ 032)891-0651, 010-2080-0651

에녹부흥 사관학교

대 표



곽영민 목사

등불교회 담임
예수능력치유센터 원장
예장(백석) 인천노회 소속
에녹부흥사관학교 대표(연수원장)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 5대 대표회장
지저스타임즈 부흥사회 사무국장
지저스타임즈 인천지사장/ 본사 사무국장

교장(서울)



김명옥 목사

교장(인천)



김해자 목사

행정



윤광석 목사

교 수 진



김선우 목사



김성림 목사



김영중 목사



곽영민 목사

http://kiea.onmam.com

과목: 교재제공 및 회비 없음

☞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2시.
☞장소 : 충만교회 · 총회신학연구원.
☞주소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1동 8-7 2층.
☞문의 : (대표)010-2080-0651, (사무국장)010-2008-5072

총회신학연구원 신학생 수시 모집
(문의:학장 김해자 목사 010-5517-7223)

2013 행복한 만남이 있는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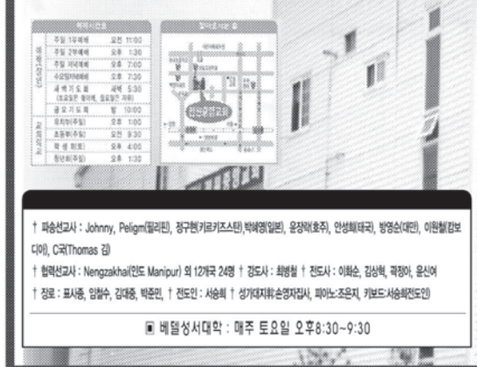


담임목사 정기환 (D.Ed.,Th.D)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따듯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

전원중앙교회는 † 여러분을 주님과 동행하도록 돕는 교회입니다.
† 여러분의 가정과 행복하기를소망하는 교회입니다.
† 행복한 사랑이 피어나는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전원중앙교회의 미래 1.성장하는 교회 2. 건강한 교회 3. 아름다운 교회



† 파송선교사 : Johnny, Peligm(필리핀), 정구현(카르키즈스탄) 박혜영(일본), 윤장덕(호주), 안성희(태국), 방영순(대만), 이원철(캄보디아), C국(Thomas 김)
† 협력선교사 : Nengzakhai(인도 Manipur) 외 12개국 24명 † 강도사 : 최병철 † 전도사 : 이희순, 김상택, 곽정아, 윤신여
† 장로 : 표사중, 임철수, 김대중, 박준민, † 전도인 : 서승희 † 성가대지휘손영자집사, 피아노:조은지, 키보드:서승희전도인)

▣ 베델성서대학 : 매주 토요일 오후8:30~9:30

가정같은교회 ↔ 교회같은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전원중앙교회

담임목사 정기환(D.Ed.,Th.D)
▷SBS방송설교안내: 라디오 5분 메시지, AM837, FM98.1 매주(목) 저녁8:55분
▷cbs 인터넷방송 WWW.CBS.CO.KR 24시간 청취가능
▷JTNTV방송 지저스타임즈 신문방송 이사장' (www.jtntv.kr www.cpj.kr)

주 소 : 420-866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2동 579-5 (전원마을)
사무실 : 032) 321-9101, 9102, 9109
전화설교 152▷3927
홈페이지 : www.gardenchurch.org
교회통산 : 강원도 양주군 동면 원당리 산43-4번지

www.inamhyun.org
대한예수교장로회
남현교회

"2013년 표어" "넘쳐나는 교회"
전도로 구원받는 백성이 넘쳐나는 교회
기도로 응답받는 역사가 넘쳐나는 교회
은혜으로 성숙한 일군이 넘쳐나는 교회



담임목사 이춘복

비전 2020
1. 열정적 전 도
2. 전인적 양 육
3. 사랑의 공동체
4. 감격의 예 배
5. 기쁨의 봉 사
6. 즐거운 교 제
7. 능력의 선 교

예배시간 안내

주일낮예배	1부	주일 오전 7시 30분	대예배실(3층)
	2부	주일 오전 9시 30분	대예배실(3층)
	3부	주일 오전 11시 30분	대예배실(3층)
주일청년예배(1부)	1청년부	주일 오후 2시 30분	비전홀(1층)
	2청년부	주일 오후 2시 30분	1세대나실(2층)
주 일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시	대예배실(3층)
수 요 예 배		오후 7시30분	대예배실(3층)
수요심야기도회		오후 11시 30분	대예배실(3층)
새벽기도회	1부	매일 오전 5시	비전홀(1층)
	2부	매일 오전 6시	비전홀(1층)

주일학교예배 (오전 11시 20분)

영아부(3세이하)	1층 영아부실
유치부(4~7세)	1층 유치부실
1초등부	2층 1초등부실
2초등부	2층 2초등부실
중등부(중1,2,3)	2층 중등부실
고등부(고1,2,3)	2층 고등부실
태아사랑학교	1층 유치부실
아기학교	1층 유치부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346(개봉동 170-18)
전 화 / ☎02)2618-8877-8, 2060-9123
FAX 2060-9124 / 당회장실 ☎ 02)2684-3317

「논설」탈북자 북한 송환의 소감


논설위원 최순길 목사
(JTNTV신문방송 상임이사)

산 넘고 물 건너 라오스까지 왔던 탈북자 9명이 북한으로 압송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탈북자들이 어디 그들뿐인가? 그들 중 많은 사람이 국내에서 살고 있다. 혹 그들 가운데 북한으로 스스로 되돌아간 사람도 적지 않다.

ANT 사람들은 그들의 꿈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하지만 지전 그들에게는 먹는 것보다 자유이다. 그들은 자유를 찾아 왔으면서도 자유로운 한국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것은 결코 우리가 말하는 굶주림도 자유도 아닌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 라오스 당국에 체포된 지난 10일 이후 18일 동안에 라오스 대사관의 소극적인 자세가 그리 곱지만은 않다. 대사관 쪽은 그동안 라오스 정부가 탈북자 문제에 적극 협조해왔기 때문에 안이하게 대처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여하간 그 통로를 통해 1000명에 가까운 탈북자가 우리나라로 들어왔다지만, 지금 정부가 그들을 쉽게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우선 개성문제로 민감해 있는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그것 때문이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이다. 그야말로 정부가 무조건 그들을 도와 국내로 받아들인다면 그에 따른 여파는 더욱 심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기인 20~24일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 비서 쑤깐 마하랏이 평양을 방문했다. 쑤깐 비서의 방북이 라오스 정부의 탈북자 추방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그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체포되어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사형까지도 당하는것을 우리는 겪었다. 탈북자 문제는 그들을 우리나라로 데려오는 것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논리와 관련국의 논리가 다르기 때문에 공개외교를 통해 처리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그래서도 외교부는 쉽게 그들을 처리하기 곤란했을 것이다. 우리는 탈북자를 국제법에 따른 난민으로 처리해주기를 바라지만, 해당국과 국제사회는 기껏해야 인도적 사안으로 선심을 쓰고 있는 정도가 아닌가? 따라서 사건이 돌출되기 전까지는 될 수 있으면 물밑에서 '조용한 외교'를 통해 국내 송환을 할 수 있었어야했다.

그러나 이렇게 일이 불거진 다음에는 그 일로 북한의 감정을 건드릴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관행을 답습하는 고식적 태도로는 탈북자 인권을 지킬 수 없다.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제2의 탈북자 북송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탈북자의 강제북송이 난민지위협약 등에 어긋나는 반인권적 행위임을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상기시키고, 탈북자 문제는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처리한다는 우리 정부의 원칙을 재차 설명할 필요가 있다. 유엔난민기구나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등 국제기구와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이제는 사안이 외부로 불거졌으니 국제사회에 인권문제로 적극 제기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그들을 도와 탈북하도록 한 이들은 꼭 대사관을 통하여서만이 아닌 다른 밥법도 있을 것이다. 소수의 그들 때문에 정부가 난감해 지지 않도록 우리국민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도영성 신학원, 봄 학기 종강예배 드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물로 주려 함이니라'(마10:45)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15-3의 1 필지 에스디엑스 더블유-타워 11층 1108호에서 사도영성 신학원(학장 홍항표 목사)은 6월 25일 오후 7시 봄 학기 종강예배를 드렸다.

홍성익 목사 진행으로 시작된 종강예배에 선년규 장로(사도영성 선교회장)가 기도를 하고, 환영사를 전하고, 양미상 목사가 빌 1:20~24절을 봉독을 한 후 사도영성선교회원들의 특송이 있었다.

이어 권다윗 목사(호주시드니 알파크로시스대학 대학장, 국제다문화선교총회 총회장)는 '자는 자여 어쩜이뇨'라는 말씀으로 설교하고, 이어 '목회적 안보와 관점'이란 주제로 강의를 했다. 이어서 파송의 노래를 열창으로 봉헌예물을 드렸으며, 학장 홍항표 목사의 인사소개와 선교회 총무 김동현의 광고와 학장 홍항표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학장 홍항표 목사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이때 영성생활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우리의 영성생활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큰 관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3년 동안 12제자를 택하여 진리를 가르치고 훈련시켜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셨는데, 12제자들은 높은 학벌이나 좋은 가문 부자로 살거나 큰 권세와 명성을 갖춘 직업을 가지지 않았으며, 그러나 주님께서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12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천국건설 사업을 맡기신 것이다.

또한 그들에게 산상보훈을 비롯한 많은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고 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만 생활하신 예수님의 행실을 보면서 사도들은 생명의 빛을 보았고 생명의 향기를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한편 사도영성 신학원의 가을학기 개강예배는 9월 3일에 있을 예정이다.

내 고장 내 나라의 주인공 되리



동대구초등학교(교장 전태문)는 지난 12일 '2013학년도 1학기 혁신교육' 박선애 교사의 수업공개가 있었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가꾸어 가는 질 높은 교육의 실현을 위한 이번 행사는 2교시 선진형 교과교실제에 따른 수업 공개가 진행됐다. 교과서를 단원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닌 학생의 사고력 증진에 초점을 맞춘 수업이었다.

교사가 제시한 하나의 포괄적 문제에 대하여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모둠이 토론하고 협동하여 과제를 발표하고 토의하는 공개 수업이었다

이날 행사에는 교수, 교장, 교사 50여명이 참관하여 학생들의 학습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진정한 학생 중심의 수업을 진지한 자세로 참관했다.

참관 후 열린 협의회에서는 수업 참관 소감 및 새로운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돼 이를 바탕으로 학교장을 비롯한 전 교직원은 교수 학습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욱 더 힘쓸 것을 다짐했다.

수업 참관 후 수업 내용과 기술에 대한 컨설팅 시간을 통해 수업 교사는 물론 함께 자리한 많은 교사들의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대구초등학교 전태문 교장은 이날 인사에서 '꿈과 사랑으로 희망과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동대구초등학교'를 소개하고 감사하면서 본교는

1. 꿈이 있는 학교로서, 아이들이 살아가고 싶은 미래의 세상을 설계해나갈 수 있도록 아이들의 마음에 절실한 꿈을 심어주며, 다양한 삶의 문제를 고민하고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아나가면서 자기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 사랑이 있는 학교로서, 아이들이 열심히 배우고 익히면서 자아존중 감을 내면화하도록 하고, 더불어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의 선을 실현해 나가는 마음가짐을 심어주고 싶다고 했다.

3. 희망과 행복이 있는 학교로서, 아이들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학교가 되기 위해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의 모든 선생들이 서로의 마음을 소통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가지는 것이며 모든 이들의 꿈과 사랑이 어우러져 희망과 행복을 함께 목청껏 부르고 나눌 수 있는 학교가 되는 것이 전태문 교장의 비전이요 진심이라고 했다.

대구지사장 박수영 기자

PD(민중혁명)계열 검사 재심 퇴출해야

지역적 편파성과 이념적 편향성에 의혹이 제기 된 공직 부적격



소위 주사파가 주도해 온 90년대 운동권이 북괴 지령에 따라서 국보법폐지 파쇼폭압통치기구 [안기부폐지]에 앞장섰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92학번, 1996년 서울대 총학부회장역임 민중혁명(PD)계열 반체제 운동권출신 검사가 직전 국가정부기관 총수를 선거법으로 옭아 넣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만약 그가 제대로 된 검사라면, 임용선서나 공무원 윤리규정과는 상관없이 양심과 상식에 따라 자신의 운동권전력에 비춰 사건을 회피했어야 한다. 그러나 서울지검 국정원사건(국정원여직원 불법감금/국정원댓글혐의)의 주임검사 진재선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서 공무원법, 검찰청법, 국가보안법, 직권남용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경찰청에 형사 고발을 당기에까지 이르렀다.

검사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55조)에 의거 소속기관장 앞에서 취임선서를 하게 돼 있다. 따라서 입법 사법 행정 각부에 소속 된 각급기관 공무원은 임용에 앞서 소정의 선서를 하게 돼 있다. 국회나 법원도 예외는 아니다.

국가의 형벌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기소 독점권을 행사하는 막중한 권력을 가진 검사 역시"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라고 임용선서를 하게 돼 있다.

진재선이 검사임용 선서대로 불의에 맞선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계층을 위한 따듯한 검사, (지역편파성이나 이념적 편향성이 아니라)진실만을 따르는 공평한 검사로서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동향이 아니라)국민을 섬기고 (운동권적 이해가 아니라)국가에 봉사하고 있는지는 자성해야 할 것이다.

검사도 헌법위배, 법률위반 합당한 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거나 검찰인사위원회와 법무부 징계에 의해 면직이나 파면을 당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검찰청법 39조)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런 법규정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진재선이 어떤 내용의 검사임용 선서를 했는지, 검사임용 7년이 경과 됐는지, 언제 [적격심사]를 거쳤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저런 부류의 지역적 편파성과 이념적 편향성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이 제기 된 자는 공직에 부적합하다. 더구나 국가 형벌권 집행을 대리하는 검사로서는 부적격이다.

논설위원 백승목
hugepine@hanmail.net

제2회 전국여교역자 성령치유대성회 큰 성황!

대표회장 장창윤 목사, 주강사 조강수 목사가 영성의 콤비네이션 이뤄



말씀과 찬양으로 국내 최고정상에 우뚝 선 두 강사로 콤비네이션을 이루어 제2회 전국여교역자 성령치유대성회가 지난 3일부터 6일 저녁집회까지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에서 개최되었다.

실망과 좌절로 고통당한 자들과 병든자들이 소문을 듣고 참석한 그들에게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기와 소망을 안겨주면서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대 성황을 이룬 집회가 되었다.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도 치료받을 수 있다" 는 주제로 열린 성령치유대성회는 전국에서 많은 여교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질환자, 소경, 하체의 마비로 걸을 수 없는 환자가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체험의 장이 되었다.

성회가 열리는 동안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눈이 보인다. 앉은뱅이가 일어나 걷는다. 암병으로 고통 중에 있던 환자가 치료받았다하고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면서 손뼉을 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3박4일 동안 열린 집회가 끝나자 아쉽다면서 다음 집회가 또 열리느냐고 본부를 찾아 묻기도 했다. 이에 대표회장 장창윤 목사는 제3회 성령치유대성회는 가을에 열릴 예정이라고 답하고 기도를 부탁했다.

전국 여교역자 성령치유 대성회는 말씀과 찬양으로 균형을 이루는 영성회복의 집회로서 한국교계에 신성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어 더욱 기대가 된다.

한편 대표회장 장창윤 목사는 웨신찬양신학교를 통해 많은 찬양가수 및 찬양사역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주강사 조강수 목사는 웨신총신 및 찬양치유신학교 이사장으로 유능한 인재발굴을 위해 후원하고 있다.

아울러 제2회 오산리기도원 성령치유대성회는 웨신총회신학교, 웨신찬양신학교(학장 장창윤 목사) 주최로 열렸으며, 주강사로 나선 조강수 목사(영광교회)의 후원으로 진행되어 마지막 날 대표회장 장창윤 목사 축도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多양한 선교! 多양한 사역! '선교단체박람회' 개최

GBT WEC OM OMF 인터서브 등 9개 선교단체 참석

지난 22일 오후 3시부터 6:30분까지 수영로교회 교육센터 7층에서 '선교단체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선교단체박람회'는 부산, 경남지역 선교헌신자들의 선교사 파송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엘레브세계선교회와 협력하는 선교단체인 GP WEC OM YWAM 인터서브 GMP HOPE GBT OMF 등 9개 단체가 참석했다. 수영로교회 선교본부(본부장 박일규 목사)와 엘레브세계선교회(이사장 정필도 목사)가 주최하고 수영로선교사 훈련학교(SMTC. 대표 이헌주 간사)가 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지난해에 이어 2번째이다.


지난해 개최한 제1회 선교박람회

초청된 선교단체들은 부스를 만들어 일대일 상담 등을 통해 선교동력화를 위한 각 영역별 선교를 홍보한다는 다짐이다. 선교단체박람회를 주관하는 수영로선교사훈련학교(SMTC) 이헌주 대표는"이번 선교단체박람회는 주로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선교단체 대표와 동원담당자들이 직접 참석해 선교정보를 제공하는 흔하지 않은 기회"라며"선교의 비전을 품고 있는 성도들은 이번 선교단체박람회를 통해 각 선교단체의 비전과 특징, 파송현황과 사역내용 그리고 선교회 파송기준과 절차, 훈련 등의 정보를 통해 선교 비전을 더욱 구체화하는데"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각 선교단체 대표와 동원담당자들이 직접 일대일 상담

제68차, 성경계열인 다수필사본, 중립사본의 차이

이 시대는 성경다원화 시대가 되어 수많은 성경이 쏟아져 나온다. 수많은 성경이 쏟아져 나올지라도 그 뿌리를 찾아가면 두 뿌리뿐이다. 다수필사본계열(수용원문)과 중립사본계열(수정원문)이다. 다수필사본계열(수용원문)에서 번역되어진 성경으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셔서 보존해 가시므로 본문 비평을 하고 편집하며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일점일획 없어지지 않는다고 믿는다(온전축자영감론).

중립사본 계열(수정원문)에서 번역되어진 성경으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 되었다고 하여 고고학과 과학문명과 신학사상과 고등비평으로 편집해 가는 성서계열이 있다(신 정통주의 영감론, 자유주의 영감론).

1)마2: 1절- 이제 헤롯의 왕 날들이(WH 이제란 단어 삭제) [원어 신약성경] 이제 헤롯의 왕 날들이, [흠정역] 이제 헤롯의 왕 시대에, [바른성경] 헤롯의 왕 때에, [개역성경]- 헤롯의 왕 때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계열인 다수필사본계열 (원어 신약성경과 흠정역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계열인 중립사본계열 (WH와 개역성경과 바른성경)

2)마2: 3절- 헤롯 왕과 그와 함께 온 예루살렘이 이것들을 듣고 나서 소동한지라. [원어 신약성경] 그와 함께, 흠정역- 그와 또 그와 함께, [바른성경] 그와 함께, [개역성경]-삭제

3)마2: 6절-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네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집권자들 중에/고을 중에) [원어 신약성경]너는 유대의 집권자들 중에서, [박사성경]네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흠정역]네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바른성경]너는 유대 통치자들 중에, [개역성경] 너는 유대 고을 중에

4)마2: 6절-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하셨나이다, 하매 목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스리라°목자가 되리라)[원어 신약성경]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박사성경]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흠정역]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바른성경]-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다. [개역성경]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5)마3: 3절-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곧게하라?길들을 곧게하라°첩경을 평탄케 하라)[원어 신약성경]그의 길들을 곧게하라, [흠정역]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하라, [바른성경]그분의 좁은 길들을 곧게하여라, [개역성경]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6)마3: 4절- 이에 이 요한은 그의 낙타 털옷을 입고 또 가죽띠를 띠고 이에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야생꿀이었더라.(야생꿀/들꿀/석청) [원어 신약성경]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야생꿀이었더라. [흠정역]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더라. [개역성경]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더라. [바른 성경] 메뚜기와 야생 꿀이었다.

7)마3: 6절-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침례/세례) 예수님께서는 침례(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고 침수를 받으셨다. 침례나 세례나 흐르는 물이 있는 곳에 갈 수가 있으면 가서 예식을 행하여야 할 것이다. 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것이 곧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이다. [원어 신약성경]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흠정역]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개역성경]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바른 성경]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8)마3: 16절- 하늘들이 그분께 열리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원어 신약성경]하늘들이 그에게 열리고 또 그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흠정역] 하늘들이 그분께 열리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개역성경]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바른성경]하늘이 그분께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9)마4: 10절-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원어 신약성경]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흠정역]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개역성경]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바른성경]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10)마4: 12절-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것을 들으시고(예수님께서 WH삭제) [원어 신약성경] 이제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것을 [흠정역]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들으시고, [개역성경]예수님께서 요한의 잡힘을 [바른성경]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11)마4: 18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다니시다가/다니시다가) [원어 신약성경]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해변에 다니시다가, [흠정역]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개역성경] 갈릴리해변에 다니시다가, [바른성경]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12)마5: 3절-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영/심령) [원어 신약성경] 영으로 가난한자들은 복이 있나니, [흠정역]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개역성경]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바른성경]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13)마5: 4절-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WH는 4절 5절을 난외주에서 순서를 바꿈) [원어 신약성경]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흠정역]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개역성경]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바른성경]슬퍼하는 자들은 복되도다.

14)마5: 13절-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땅/ 세상) [원어 신약성경]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흠정역]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개역성경]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바른성경]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5)마5: 17절-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완전케하려/성취하러) [원어 신약성경]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하려 함이로다, [흠정역]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개역성경]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하려 함이로다 성취하러 왔노라.[바른성경]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김수정 교수
본지 운영이사
H.P 010-7520-7651

사도의 의미

사도 [Apostle , 使徒]

● 사도들의 영성을 연구하게 된 동기

목회사역을 28년을 하면서 영성운동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영성훈련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목회자에게 영성훈련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또 영성의 개발은 누구나 체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들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의문과 관심이 생기게 된 것은 같은 동료의 입장에 서있는 동역자들이나 교단 내의 목사들의 목회가 고통스러운 짐이 되는 것이 심심찮게 목격되었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과중한 사역과 업무로 목회 본래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는 등 목회자와 교회의 문제가 의외로 크다.

즉 많은 시간 성경의 원리대로 목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기대 이상 자라지 않을 때 목회자들의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이럴 경우 신자들의 신앙성장만이 유일한 해결책 일텐데 어떻게 하면 신자들을 믿음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키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실마리로 접하게 된 것이 기존의 교회내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그대로 두면서 영성운동과 훈련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신자들 개개인이 영적으로 각성하여 자신의 영적인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목회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이러한 영적각성은 목회자 개인의 소명이나 헌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임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한국적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대단히 미비하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에 대한 교단적, 혹은 교계적인 관심의 부족이 일차적인 원인이라 생각되고, 두 번째는 신학교의 커리큐럼 중에 이에 대한 가르침이나 훈련이 없다는 데에 있다고 본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 일어났던 한국교회의 여러이단들이 신비주의 계열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한국인의 의식을 설명하려면 한국인의 의식 밑바닥에 있는 유교적인 사상과 불교의 범신론적인 의식을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의식에는 동양적 영, 혼, 백의 개념이 인간론에 들어 있다. 이러할 경우 영, 혼, 육의 개념을 기독교의 전인적개념하에서 이해하는 것보다 범신론적 이원론의 범주 안에서 이해되고 가르쳐 지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대개의 기독교 영의 개념은 신비적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이단에는 귀신론의 주장과 기도원적 둔세주의를 외치는 신비주의 계열의 이단이 많은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본 논문의 주제를 영성 훈련이 교회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열매들을 살피는 데에 두고자 한다. 영성운동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또 목회자들에게 이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면 보다 교회의 갱신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밝히려고 한다. 영성계발은 누구나 할 수있고 또 해야한다는 것을 입증시키는 데에 있다.

● 용어 정의

영성훈련이 교회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게 된다. 연구과정에서 본 연구에서만 반복적으로 쓰이게 되는 몇 가지의 용어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영성(Spirituality): 영성은 '靈性(영성)'이라고 한문으로 표현하며, 영어로는 Spirituality 라고 표기한다.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종교적인 가치에 붙잡혀서 사는 영적인 삶의 상태'1)를 가리킨다.

또한 영성이란 전인격적인 의미에서의 인격과 그의 소산, 학문, 문화, 시대정신, 주의들을 지칭하는 말이다.2) 그러니까 영성이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해볼 때, 스토아주의 영성, 불교의 영성, 도교의 영성, 실존주의 영성, 해방신학의 영성, 동양의 영성, 서양의 영성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3)

영성이라는 말에다가 '기독교적'이라는 형용사를 붙이면 기독교적인 영성이라는 말이 된다. 기독교 영성: 기독교 영성을 오성춘 교수는 그의 책 ?영성과 목회?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첫째, 기독교 영성은 역사적 예수의 삶과 인격과 정신을 본받아 살며 그의 성품을 그리스도인 속에 형성하는 것이다. 기독교 영성은 기독교 교육, 역사적 예수 연구 등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상과 인격과 정신을 배우고 인간예수의 정신을 신자들의 삶가운데 내면화 시키려고 힘쓴다.

둘째, 기독교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작은 예수가 되어 살려고 힘쓴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본받아 산다는 말을 동의어 비슷하게 사용할 때가 많다.

셋째, 일반영성이 엄격한 자기(自己)훈련을 쌓으며 자기가 최고 이상이라고 판단하여 받아드린 정신을 구현하듯이 기독교 영성도 훈련을 강조한다. 라고 해서 일반 영성과 구별하여 기독교 영성을 말한다.

기독교 영성이 일반 영성과 구별되는 독특성은

첫째는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는 점이며, 둘째는 일반 영성이 역사적 인격의 정신과 사상과 삶을 본받으려는 인본적인 영성인데 반하여 기독교영성은 역사적인 예수의 정신과 삶을 계승하려는 인본적인 요소를 가질 뿐만 아니라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와 수직적인 교제와 하나님 중심의 영성인 것이다.

즉, 일반영성이 일반적으로 수평적이요, 인본주의적인데 반하여 기독교 영성은 수평적이면서 하나님 중심의 수직적 영성이라는데 그 독특성이 있다.4) 기독교 영성의 정의는 학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는데, 영성이 여러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보는 시각에 따라서 기독교 영성의 각기 다른 측면을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홍요한 목사
사도영성신학원
학장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3급자 환영)
원장 : 곽순종 목사 (본지 상임이사)
☎033)541-0687 / 010-7405-9191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사랑.섬김. 행복이 가득한
강릉 정동진 산성그리스도의교회
SANSEONG CHURCH CHRIST
담임목사 최낙현 원장
부설/장기 요양원 정동진 천망원
예/배/시/간/안/내
주일 오전 10시30분
주일 오후 1시 1시30분 2시
국제 153부흥협의회 대표회장
세계교회부흥협의회 운영회장
천안총회신학신대원실천신학교수
서울 칼로스신학연구원 교수
지저스타임즈 상임이사
210-822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55-12
TEL:(033)655-0691,0692 / H.P:010-6409-0091
E-mail:cnh1091@hanmail.net

한국기독교 장로회 홍성제일교회
2013년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문화교실
담임목사 오종설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952 번지
전화 : 041-634-0441(사무실)
041-633-6146(목양실)

사 고
지난주간 휴간으로 신문이 늦어졌습니다.
직원 모두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바른성경선교회
한빛교회
매주 수요일 오전10시~오후4시까지 특별세미나
• 강의내용
(1) 하나님의 구속사로 본 일곱 절기(레23)
(2)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표징이 일곱 절기 안에 있다
(3) 노아의 때를 알면 인자의 때를 안다.(마 24:37)
(4)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7가지 동질성(마 2:1-12)
• 대상 :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목사, 전도사, 일반성도들
• 광고후원 : 작은 구름의집 선교회
• 강사의 저서 : 20 여종 특별할인
강사 손기태 신학박사 (본지 고문)
♣참석자 전원에게 「언약의 무리」 저서 1권씩 기증. 마라나다!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경춘로 855-37(경춘 전철 금곡역 차로 5분 거리)
전화 031)592-7079, 594-3733(Fax 겸용)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천교회
ANCH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된 교회!
담임 서정환 목사
1. 실천 목표
1. 제사장 나라 된의 실천 목표
1) 교육을 통해서 다리 놓는 자된 교회(시126편5~6절)
2) 선교를 통해서 다리 놓는 자된 교회(행13:1~3절)
3) 섬김을 통해서 다리 놓는 자된교회(빌4:10~20절)
2. 거룩한 백성 된의 실천 목표
1)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성도(신5:12~15절)
2) 말과 생각에 실수하지 않는 성도(약3:1~12절)
3) 약한 자를 배려할 줄 아는 성도(롬14:1~12절)
(445-380) 경기도 하성시 안녕동 138-153
Tel.(031) 234-0511, Fax.(031) 234-7751

조에 교정선교회
담임 유윤주 목사
법무부 교정위원
영적복음가수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훈(직업훈련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884-5 202호
☎ 070-8632-6993 / 010-3035-5704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원예닮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오전 예배 1부:09:00 (오전) / 2부: 11:00 (오전)
주일오후 예배 02:30 (오후)
삼일기도회 07:30 (오후)
새벽기도회 월~금 05:30 (오전) / 토 06:20 (오전)
부서별기도회 금요일 09:00 (오후)
새가족 12:30 (낮)
청년부 02:00 (오후)
청소년부 11:00 (오전)
초등부(1~6학년) 09:00 (오전)
유치부(6~7세) 11:00 (오전)
영아부(3~5세) 11:00 (오전)
담임 이재성 목사
관악구 신원로 3길 59-9(8/2) (구.신림1동 1612-7)
☎ 02)859-3671 FAX 02)859-3673

다니엘서 4장 강해 (IX)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입은 네 가지 옷의 계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찬양

29절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육신 을 구해주신 것을 찬양한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순교케 해주셔서 영광을 더해 주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영생구원을 주신 것을 찬양하는 것이다. 누가 구원했나. 하나님의 아들 신랑예수님이 신부되게 하는 것으로 구원한 것으로 찬양한다.

육신 구해주었다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다. 느부갓네살의 찬양 내용과 다르다. 여러분도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복을 주시고 재난에서 구원해 주신 것으로 감사 찬양을 한다면 느부갓네살과 같은 것이다. 영적으로 하늘에서 영생할 것을 위하여 더해 주는 역사로, 영생구원을 찬양하는 것이라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신앙이다.

다니엘 4장

징벌을 통해서 돌이켜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4장의 주제다. 4절부터 18절까지는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이고, 19절부터 27절까지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고 왕에게 권고한다. 왕이 그 권고를 순히 받지 않고 교만 하므로 28절부터 37절까지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징벌이 응하여 일곱 해 동안 짐승으로 들에 거한다.

그루터기를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기한이 차서 일곱 해 마지막 때에 그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으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총명을 주고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켜주어 왕좌를 다시 얻게 된다. 그리고 그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크게 하고 위엄을 더해 주셨다. 느부갓네살이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칭송하며 존경을 표하며 그 분을 높인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즉 깨달은 후에 1~3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표적들과 이적들, 즉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알린다. 내용상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

구약에서는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한다. 일반적인 꿈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박사들을 불러 그 꿈의 해석을 구했으나 얻지 못한다. 그 이유인즉 바벨 박사들은 바벨론에 거하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 주신 꿈 즉 말씀을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종이므로 그 꿈을 해석하여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줄 수 있고 왕의 교만을 깨우쳐주고 돌이킬 기회를 준다.

느부갓네살왕이 교만해져 있을 때 꿈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그를 바르게 세우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의 교만을 돌이키지 않는다.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부갓네살에게 교훈하신 후 열두 달을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이다(28절). 열두 달의 마지막 날에 왕이 그의 교만함이 꽉 찼을 때 그가 꾼 꿈의 내용들이 다 그에게 응하게 된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이 변하여 짐승의 마음을 그에게 주어서 일곱 해 동안 짐승이 되어 들에 짐승들과 함께 거하며 이슬을 맞으며 풀을 뜯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다. 이 징벌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받으라는 것이다.

다니엘 4장이 마지막 때까지 해당되는 말씀이이라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다. 느브갓네살의 꿈이 느브갓네살 자신과 바벨론 나라에 일차적으로 해당되지만, 2차적으로 마지막 때까지 해당되는 말씀으로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요한계시록 17장에 큰 바벨론이 나온다.

큰 바벨론에 대해서 7년 환란 동안 하실 일을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바벨론을 예시하신 것이다. 느브갓네살이 7년 동안 고통 받는 것 같이 계시록에 나오는 큰 바벨론이 7년 동안에 하나님이 징벌을 통해서 연단되는 것이 연결된다. 큰 바벨론은 음녀라고도 한다. '7년 환란'을 다니엘 12장에서는 '개국이래로 없던 환란'으로 나온다. 환란을 통해서 '내백성아 그 음녀에게서 나오리'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큰일이다.

4장에서 그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자신이 느부갓네살의 자리에 있지 아니한가를 살피기도 해야 하겠지만 큰 바벨론에 대해서 종말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이것을 밝히 깨닫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다니엘 12장에 개국이래로 없던 환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될 것이고 희게 되고 연단되리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환란을 우리에게 복된 역사로 받는 것과 그 환란의 때에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1) 느부갓네살의 상태(4~12절, 30절)

느부갓네살왕이 바벨론 제국의 땅이 넓어지고 부강해 질 때 그가 궁을 거닐면서 나 왕이 말하되 "내가 내능력과 내권세로 내위엄의 영예를 위하여 내왕국의 집을 건설한 바벨론이 아니냐?" 고 하였다. '내가'를 여섯 번이나 말하여 자신을 높인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인데 느부갓네살이 교만으로 꽉 찬 것이다. 이것이 그의 영적 상태다. 꿈으로 미리 그에게 알리신다. 그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다.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해서 증거 하신 말씀을 듣고 깨달게 하여 회개시켜 겸손하게 하여 살리고 세우려고 했다. 즉 말씀주시고 책망하고 말씀주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여 깨닫게 하여 세우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징벌하신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자기 위치를 깨달은 것이다. 이것이 이적이다. 그리고 이렇게 깨닫고 돌이킨 후에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더 큰 영광과 권세를 주어서 그를 높인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나라를 통치하는 것으로 알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이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자신은 심부름꾼으로 그를 세우고 다스리게 하는 것이다. 3절에 '그분의 왕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이라는 고백을 징벌을 통해 나중에 하게 되는 것이다. 전에는 자신이 왕으로써 통치하고 나라를 흥왕케 하고 번성케 했다고 생각했는데 징벌로 깨닫게 되는 것이다. 바벨론제국 자체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통치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도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우리 자신이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사실 주인공이고, 자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주도하셔서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인데 그 주님은 잘 안보이고 내가 계획하고 내 뜻과 내 의지를 따라서 내가 실행하고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영광을 돌리지만 실제로 자기가 다 한 것이 된다면 느부갓네살 왕과 똑같은 오류에 빠지게 된다.

우리도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야 된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역이 나라를 통치하신다. 법을 정하게 하시고, 질서를 유지하게하고, 선한 여론을 일으키게 하고, 권선징악을 하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되면 복이 되지 못한다.

4절부터 간증하는 것이다. 언제 꿈을 꾸었느냐? 나라가 번영을 누리고 커졌을 때 최고로 잘나갈 때에 꿈을 꾸었다. 번영하고 있을 때 꿈을 꾸게 하는 것은 나라가 크게 발전되고 자기가 최고로 올라가 영광을 누리고 있을 때 뭐가 최고로 높아졌겠는가?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있다면 자기의 교만과 오만이 최고로 올라갔을 때이다. 어느 정도 자라 갔을 때는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을 가리고 최고로 올라갔다면 멸망으로 떨어질 일 밖에 없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의 생각이 어떠했겠는가?

'내가 바벨론 제국을 세워서 엄청난 영토와 많은 백성을 다스리는 구나' 라고 하나님이 주가 아니고 '내가'가 그 자리에 설 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돌이키기를 기다리며 그에게 합당하게 꿈으로 역사 하신다. 반드시 악은 만기가 있다. 악을 행해도 적당히 행하라고 했다. 그 이상의 한계에 이르면 하나님이 멸하신다.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필요하고 마귀도 필요하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르는데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영광을 예비하는데, 또한 더 큰 영광을 예비할 수 있는데 마귀나 악인들이 품꾼으로 쓰임 받는다.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나 악인들의 역할로 악역을 할 때 정하신 한도까지만 허락 하시는 것이다.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웨신대한노회장
본지 상임이사

사도영성신학원, "복음상담실" 특강

상담학 박경혜 박사 (3)

Q) 고등학생 때에 예수님을 영접한 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제 동생이 군에 입대하면서부터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하더니 결혼을 한 후에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으며 술, 담배는 물론 어떠한 이유로도 교회를 가기를 거절합니다. 예전에는 구원받은 확신에 넘쳐서 집안에서도 간증을 열심히 하며 성경 공부에도 열심히 참여하여 연구하던 동생이기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일 것이라고 믿곤 있지만, 때론 정말 염려가 됩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범죄 하면 심판에 들어가 멸망하게 되는 것일까요? 동생의 아내도 불신자이기 때문에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너무나 안타까워 도움을 청합니다.

A) 동생을 염려하시는 집사님의 마음이 참 아름답군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셔서 영생의 길을 예비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믿고 신뢰할 때 성령을 선물로 얻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가족이 잘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며, 신학이라는 학문을 통해 얻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 생명의 관계를 맺는 영적인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지요(요1:12). 그러므로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삶 속에서 실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마6:33).

만일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항상 두렵고 불안하게 살아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신분인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마음으로 행실로 순간순간 범죄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롬3:23).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3년간 충성스럽게 추종하다가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셨을 때에 그는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렇다고 베드로 사도가 구원받지 못했나요? 아닙니다. 그 일로 인해 베드로는 철저히 통회하며 주님께 충성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랴 바다에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 물으실 때에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집사님!

우리의 구원은 내 행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 할 점은 한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해도 그가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자신 스스로가 마치 구원을 잃은 것 같이 생각하며 스스로 자신을 '나는 또 죄를 졌어,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지켜주시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지요. 누가복음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방탕한 자식을 항상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이제 집사님께서 동생을 위하여 하실 일은, 우리 영혼의 구원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므로 동생을 위하여 끊임없이 그가 속히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 권면 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은 가출해도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집사님께서 몸소 보여주시는데 동생을 심판하는 자세나 비난하는 태도보다는, 오히려 이해하고 사랑해주며 그의 마음을 읽으려는 모습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동생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복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으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면 이런 어려움과 갈등을 통해 성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마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네 가지 밭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 중에 돌밭을 보면 씨가 떨어져 싹이 났으나 햇볕이 쨍쨍 내리쬘 때에 말라 타죽을 수가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나 세상의 환난을 만날 때에 뒤로 물러서서 주 저 앉아 버리는 심령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런 여러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들 있습니다. 이제 집사님께서 오랫동안 방황하던 동생이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와 격려와 권면을 병행하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승리하시길 저희도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박경혜
상담학박사

대한민국 밀알심장재단, 탄자니아 대통령과 정부 MOU체결

사단법인 밀알심장재단(회장 이정재)는 아프리카의 죽어가는 심장병 환자들을 위하여 지난 4월 탄자니아를 방문하였다. 부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예방하고 탄자니아의 심장센터와 국립의과대학에 한국의 심장 기술을 이전하여 10년 안에 탄자니아를 아프리카 53개국 허브로 성장시키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6월 18일 주 탄자니아 대사(정일 대사)의 초청으로 다시 탄자니아 보건복지부 장관과 미팅을 가졌다.

민간단체 최초로 탄자니아 대통령, 총리,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사단법인 밀알심장재단과 탄자니아 보건국은 10년 동안 탄자니아의 심장병 환자 수술과 의료기술을 위하여 국립심장센터와 국립 의과대학에 한국의 의료기술을 전하며 양국의 우호와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1987년에 시작된 밀알심장재단은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인도,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코소보, 이라크, 캄보디아, 이집트, 스리랑카 등 전 세계 2500여명 심장병 환자들에게 새 생명을 전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으며, 또한 해외에 있는 한국 기업들과 한국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작년 캄보디아 국왕으로부터 최고 훈장을 수여 받았으며 각 나라에서 끊임없는 고마움을 표하고 있다.

금번 MOU체결에서 밀알심장재단(회장 이정재)은, "밀알심장재단은 26년 동안 2500여명의 심장병환자를 살린 노하우와 전 세계의 심장병 환자들을 수술한 한국의 우수한 심장수술 기술을 탄자니아 국립심장센터와 국립의과대학에 전수 할 것입니다.

탄자니아 대통령과 정부는 이곳 탄자니아에서 탄자니아를 품고 일하는 한국의 모든 기업과 가정들을 사랑해주시기를 바라며 향후 양국 우호와 협력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이 프로젝트가 10년 안에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밀알심장재단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에 탄자니아 자카야 키크웨테(Jakaya Mrisho Kikwete)대통령은, "대한민국 밀알심장재단을 환영합니다. 탄자니아는 너무나 가난하여 수많은 심장병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먼 인도에서 힘들게 수술 받고 있습니다.

저는 심장병으로 고통 받는 탄자니아 환자들이 이 땅에서 수술 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병원과 장비가 있지만 기술이 부족하여 수술을 시행하지 못하였던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던 중, 대한민국 밀알심장재단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실시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밀알심장재단에서 우리나라의 의사들을 교육하여 우리나라 의사 중 한 명이라도 수술을 시행하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의사들이 대한민국의 의료기술을 배워 죽어가는 심장병 환자 수백 명의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이 나라에 이제까지 없었던 위대한 일입니다. 이 위대한 일을 위해 탄자니아에 오신 밀알심장재단과 회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화답하였다.

행사를 마친 후, 주 탄자니아 정일 대사는, "어렵고 힘든 길을 와주시어 감사를 전합니다. 이 아름답고 헌신적인 발걸음이 복되기를 바라며 아픔이 있고 도움을 바라는 이 땅에 새 생명을 전하는 민간 외교로 대한민국을 알리는 밀알심장재단 이정재 회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탄자니아와의 MOU 체결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라고 이번 프로젝트에 감사를 표하였다.

경제지원을 통하여 아프리카의 교두보로 삼고자 중국의 시진핑 서기장과 일본의 총리, 뿐만 아니라 다음주에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탄자니아를 방문한다. 이에 반해 한국의 밀알심장재단은 경제적 이익이 아닌 아프리카의 죽어가는 심장병 환자들을 살리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탄자니아를 방문했다. 이에 대통령은 국회 예결산 중에도 MOU체결을 위하여 총리까지 대동하고 자신의 관저에서 MOU를 성사시켰으며 이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감사를 전하였다. 아프리카의 흑진주 탄자니아를 통하여 앞으로 아프리카 53개국의 문이 열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정재 회장이 탄자니아 대통령과 MOU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가운데: 탄자니아 대통령 자카야 키크웨테 (Jakaya Mrisho Kikwete), 대통령 왼쪽: 총리, 총리 왼쪽: 밀알심장재단 회장, 대통령 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 장관 오른쪽: 보건복지부 차관, 뒤: 보건국과 직원들)



한기총, 박용규 교수 외 110인의 성명서에 대한 반박 성명서

'최근 한기총의 다락방 류광수 이단해제에 대한 신학대 교수 110인 의견'이라는 성명서가 발표된데 대해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신학교수라는 자들이 이단과 같은 진리의 문제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나 대화는 하려하지 않고 과거 이단감별사들이 해왔던 방식으로 여론몰이를 통해 이단정죄를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단에 대한 정죄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신학적 바른 입장에서 정리하고 먼저 이단으로 정죄된 자가 신학적으로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음을 깨닫고 알게 해 바르게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신학자들인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성명서를 보면 류광수 목사에 대한 신학적 고뇌는 전혀 들어있지 않으며, '삼신론'과 '월경잉태론'으로 이단 정죄된 최삼경이나 몇몇 그를 추종하는 사이비 주동자들에 의해 한기총을 음해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음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됨으로 경악을 금치 못했다.

110명의 교수들이여, 그대들의 귀가 따갑고 눈이 뚫어져라 확실하게 확인시키고자 하니 다시는 몇몇 이단감별사들의 정치노름에 놀아나는 어리석은 학자가 되지 않기를 경고한다.

류광수 목사에 대한 문제는 한기총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교단이 류광수 목사를 받아드린 것(2011년 6월 20일)으로 개혁교단 자체의 문제였지 한기총과 류광수 목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밝혀둔다. 그러나 한기총을 음해하려고 하는 소수의 무리들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안티 언론을 등에 업고 한기총이 류광수 목사를 받아들인 것처럼 한기총의 고유업무를 방해하고 기독교 대표기관인 한기총의 명예를 극도로 훼손하였다.

예장개혁 총회가 류광수 목사를 받아들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예장개혁 교단은 류광수 목사의 전도총회를 받기 전 교단해체를 요구하고, 개혁교단에서 재검증을 할 것이며 개신대학원대학교에서 재교육을 받을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였다. 이에 류광수 목사는 예장개혁 측의 요구에 동의하여 전도총회를 해체하고 개인별 혹은 노회별로 가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기총의 일부 회원 교단이 류광수 목사의 이단성에 대하여 개혁 측의 이단대책위원회와 신학위원회가 결정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재조사할 것을 헌의해 왔고, 한기총 임원회는 그 헌의를 받아들여 2012년 2월 27일자로 예장개혁 총회에 "류광수 목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귀 교단에 대해서 한기총의 정관에 의거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알리는 최후 공문을 보냈다.

이에 예장개혁 총회는 "지금은 총회가 파회 중이니 9월 총회까지 류광수 목사를 철저히 검증하여 한국교회에 오해가 없도록 보고를 하겠다."며 회신을 해 왔다.(2012년 3월 28일) 예장개혁 교단은 9월 총회가 끝난 후 한기총으로 보내온 공문에 "예장개혁 총회가 자체적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검증한 결과, 류광수 목사는 이단성이 없다고 사료된다"며 한기총에 재심을 요청해 왔고, "한기총의 재심결과에 예장개혁 총회는 그대로 순응하겠으며, 만일 류광수 목사가 이단성이 있다고 결론이 난다면 즉각 제명하겠으니 한 점의 의혹없이 한국교회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해 왔다.

한기총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와 전문위원회에 모든 것을 위임하여 결과를 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대위는 110명의 교수들을 선동한 총신대 박용규 교수에게 두 번의 우편을 보내 예장합동 제81회 총회에서 류광수 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한 장본인으로서 그 당시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묵묵부답이었지 않는가?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는 또다시 예장합동 총회장 정준모 목사와 총무 황규철 목사에게 공문을 보내 박용규 교수가 이단 정죄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더니, 황규철 총무를 통하여 제81회 총회에 제출한 박용규 교수의 자료를 보내왔다.

이와 함께 그동안 수집된 류광수 목사 관련 설교자료, 잡지, 테이프 등을 바탕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60여개 항목의 질의서를 작성하고 50여개 교계 신문, 방송기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류광수 목사를 불러 2012년 12월 28일 한국교회 앞에 공개청문회를 열고 심문하기에 이르렀다. 심문 당시 위원은 아래와 같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위원장 이건호 박사(중앙총회신학 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부위원장 남태섭 박사(총신대 전 운영이사장), 서기 윤덕남 박사(기독교한국침례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회계 이병순 목사(예장합동선목), 위원 김응선 목사(예장합동), 이태선 목사(예장합동), 강기원 목사(예장), 김원남 목사(예장선교), 진택중 목사(예장보수), 김창수 목사(예장보수합동), 도용호 목사(예장호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전문위원

위원장 김만규 목사(예장합동), 부위원장 나용화 박사(예장개혁, 개신대학원대학교 총장, 조직신학), 서기 유장춘 박사(예장합동, 법학박사), 위원 조영엽 박사(예장합동,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유흥옥 박사(예성, 성결교 신학대학원장, 조직신학 교수), 김남식 박사(예장합동, 총신대 교수), 정종진 박사(예장합동진리, 구약학 교수), 김향주 박사(예장대신, 대신대학원 변증학 교수), 박우삼 박사(그교협, 기독교교육학 교수), 김경직 박사(예성)

이상의 위원들이 공개청문회를 거쳐 심의한 결과 (류광수 목사는) 이단성이 없음을"한기총 임원회(2013년 1월 3일)에 보고하였으며, 실행위원회(2013년 1월 14일)에 이 안건을 상정했다.

실행위원회 당시 김준규 목사(예장합동 증경총회장, 한기총 명예회장)는 "우리 교단의 이단 정서가 있으니 다음으로 연기하자", 김응선 목사(예장합동)는 "오늘 말고 다음 실행위원회에 이 안건을 재상정하자"고 할 때, 이태선 목사(예장합동)는 "합동은 합동 법이 있고, 한기총은 한기총의 권위가 있는 것이니 이단대책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다루고, 다만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하면 좋겠다"고 하자 이 때 회원들이 거수로 하자고 격렬한 반대가 있었으나 남태섭 목사(한기총 서기)는 "무기명 비밀투표는 대표회장의 고유의 권한이니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고, 대표회장은 중립을 선언해 무기명 비밀투표가 실시됐다.

그 결과 67표 중 찬성 44표, 반대 19표, 기권·유보 각각 2표씩으로 이대위 보고를 그대로 받았던 것이다. 대표회장은 "다만 반대가 19표가 나왔으니 반대하는 교단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재조사할 것을 조건부로 받자"고 회원들에게 요구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금번 교수 110명의 성명서를 주도한 예장합동 측의 박용규 교수는 과연 어떤 인물인가? 박용규 교수는 2012년 11월 26일 '한국교회 이단 사이비 운동비평'이라는 심포지엄을 열고 신천지 간부 출신이며 이단 검증도 받지 않은 신현욱 씨를 대동하고 이단 관련 세미나를 진행하며 한기총을 향해 "정치적 목적으로 접근,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이단규정이나 해제하는 기관이라고 음해한 자이다.

그러나 박용규 교수의 말대로 최소한의 이단검증이나 절차도 무시한 채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자칭 2인자라는 신현욱과 함께 심포지엄을 한 것이야 말로 이단행위가 아닌가? 본인이 이단으로 규정한 류광수에 대한 한기총의 자료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사교집단의 사람과 기자회견이나 하는 정치적 교수는 마땅히 총신대에서 추방되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이번 성명서에서 한일장신대는 K 교수가 교수 전원에게 이메일로 반대자가 없으면 모두 서명에 동의하는 것이라는 일방적인 통보로 47명의 서명을 받았고, 장신대도 총신대 K 교수가 역사학자 교수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부산장신대는 T교수가 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기총 이대위에서 자체 조사하고 교수들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박용규 교수가 동의해 달라고 하여 동의한 것" "구춘서 교수가 동의해 달라고 해서 동의했을 뿐"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며 누가 이름을 도용한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고 심지어는 "안식년으로 해외에 가 계셔서 연락자체가 안 된다"는 답변 등 대다수 교수들이 전혀 동의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한기총을 음해한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발본색원하여 강력한 법적대응을 할 것이며, 한국교회 발전과 개혁을 위해 이번에 참여한 교수 전원에게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110명의 교수들에게 묻는다. 그대들은 류광수 목사의 이단문제를 논하기 전에 소위 최삼경 신학인 '삼신론'과 '월경잉태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올바른 학자라면 한국교회 앞에 대답해야 할 것이다. 한기총 이대위는 류광수 목사에 대한 조사나 결의가 있기 전 최삼경에 대한 이단정죄가 먼저 있었고, 그대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이것에 먼저 답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박용규 교수는 누구보다 최삼경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가까운 사람으로 한국교계에 알려져 있는 자이다. 그러나 박용규 교수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교단 제96-2차 정책실행위원회와 제97회 총회에서 '삼신론'과 '월경잉태론'을 주장한 최삼경은 "개혁주의 신앙에 반하는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를 옹호하는 모든 세력은 동조자로 규정할 것을 발표한 것이다.

또한 한기총 소속 산하 50여 교단에서도 최삼경을 중세 이후 가장 악랄한 이단으로 규정하였다. 한국교회 역사상 최삼경 만큼 많은 교단에서 이단 규정이 된 자도 없을 것이다. 그런 심각한 이단에 대해 최삼경 부대라고 할 수 있는 이단감별사 박형택(학력위조), 진용식(초등 중퇴, 안식교 재림교회 출신), 최병규(고신) 등은 최삼경과 뜻을 같이하겠다며 여전히 그를 옹호하고 동조하는 등의 패거리 정치를 하고 있는데 박용규 교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왜 침묵하고 있는가? 한국교회는 철저하게 이단감별사들에 의해 농락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지금 박용규 교수가 하고 있는 일이 이단감별사들의 앞잡이 노릇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번에 박용규 교수가 주도한 교수들 중에는 신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회복지학, 음악, 경제학, 영문학 등을 전공한 교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자체가 한기총을 음해하고 한국교회를 이간질시키기 위한 사전 계획된 음모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박용규 교수는 한기총은 이단정죄 또는 해제를 해서는 안 되는 기관이라고 비판하였는데 과거 최삼경은 한기총에서 1996년부터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2003~2008년까지 이단상담소장을 맡았으며, 2009년에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약 17년 동안 최삼경과 박형택, 진용식, 최병규에 의해 수많은 사람이 이단으로 정죄되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가?

이처럼 최삼경이 표적삼아 최소한의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고 마구잡이식 이단정죄를 행할 때 박용규 교수는 어디서 무엇을 하였는가? 이것에 대해 침묵한 것은 최삼경 신학을 옹호하고 동조했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박용규 교수는 본인의 말이 정당하다고 하기위해서는 과거 최삼경이 한기총을 등에 업고 17년 동안 행한 마녀사냥식 이단정죄를 하는데 동조한 것에 대하여 한국교회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단 최삼경과 그 동조세력에 의해 이단이 이단을 정죄한 잘못된 행위는 마땅히 무효여야 할 것이다.

예장합동 측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박호근 목사)가 발간한 이단사이비규정지침서 제2장 제6조에 의하면 '잘못된 보고와 자료에 의한 이단 규정은 재심될 수 있으며 진정으로 회심한 이단은 회복시켜줄 수도 있어야 한다. 성령의 역사로 회개한 경우에는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공적인 사죄와 신앙고백으로 적법 절차에 따라 해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박용규 교수는 왜? 류광수 목사의 청원을 무슨 이유로 거절하는가? 본인이 이단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에 대하여 최소한의 자괴감도 없는가? 왜? 한국교계를 대표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 한 것을 왜 거부하는가? 왜? 본인이 이단을 만들어 놓은 사람에 대해서 재심 청원이 들어왔으니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보내지 않는 것인가? 류광수 목사의 재심청원을 앞으로도 무조건 반대하겠는가?

차제에 박용규 교수의 신학관을 묻고 싶다. 박용규 교수는 최삼경의 삼신론과 월경잉태론을 옹호한 자라고 알고 있는데 본인이 소속된 교단에서는 만장일치로 최삼경을 이단으로 정죄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수많은 교단에서 중세시대 이후 가장 악랄한 이단이라고 규정하였는데 박용규 교수는 여전히 최삼경의 삼신론과 월경잉태론을 지지하고 있는지 대답하기 바란다. 또한 총신대 교수로서 초등중퇴의 학력과 안식교 재림교회 출신으로 알려진 진용식 씨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인가?

진용식 씨는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 이단 해제에 대한 어떠한 검증도 없었으며, 그가 소속된 남중노회에는 어떠한 가입기록도 없음을 확인하였다. 신현욱 씨 역시 신천지 간부 출신으로 어떤 이단 해제 검증도 없었고, 강도사 고시도 통과하지 못한 자가 목사 칭호를 쓰며 축도까지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런 자를 대동하여 이단 세미나를 열어 한국교계를 혼란스럽게 한 것에 대해서는 예장합동 교단과 총신대에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진용식이 이단 세탁을 하고 남중노회에 들어와 신천지 신현욱을 슬그머니 가입시켰고, 신현욱은 이단 출신의 강신유를 남중노회에 가입시켰다. 그리고 강신유는 또 다른 이단 출신들을 몰래 신분 세탁하여 광신대에 입학시켰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박용규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끝으로 박용규 교수가 한기총을 음해할 목적으로 110명의 교수들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몇몇 추종자들을 동원하여 성명서를 작성, 발표한 사건에 대하여 한기총 이대위는 법적대응을 하기로 한 바 본인으로 인해 110명의 교수들은 어쩔 수 없이 법정에 설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기 바란다.

2013년 6월 26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위원장 이건호 박사, 부위원장 남태섭 박사, 서기 윤덕남 박사, 회계 이병순 목사, 위원 김응선 목사, 이태선 목사, 강기원 목사, 김원남 박사, 진택중 목사, 김창수 목사, 도용호 목사, 엄정묵 박사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전문위원

위원장 김만규 목사, 부위원장 나용화 박사, 위원 조영엽 박사, 유흥옥 박사, 김남식 박사, 정종진 박사, 김향주 박사, 박우삼 박사, 김경직 박사

국정원죽이기 음모세력은 종북세력 심리전술!

정권의 안녕을 해치는 것은 총구와 야당만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와 정보의 본산! 명실상부한 최고 비밀기관이다. 아울러 대북정보와 첩보는 향후 국가의 명운을 가를 수도 있으니, 국가정보원은 한반도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기관으로서 그 운영방향, 조직, 활동, 자료가 철저하게 비밀로 붙여져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정보기관이 야당의 악다구니, 전북 군산출신 검찰총장 지휘아래 PD(민중민주)계열 막스 레닌주의를 신봉했던 운동권출신 진재선 주임검사, 30명의 젊은(운동권?) 검사들에 의해 그 조직과 활동내용이 모두 까발려지고, 직전 국정원장까지 기소되는 등 국정원폐부가 난도질당했다. 와중에 국가최고기밀들이 종북세력들에게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 14일 검찰(총장 채동욱)이 국정원 선거개입혐의를 수사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 9명이 지난 18대 대선기간 중 인터넷상에 총 1,760여건의 댓글을 달았다고 한다. 이중에서 문재인, 안철수 등 대선출마자를 직접 거명한 글은 3건, 기타 종북세력을 비판한 글이 67건인데 이 67건도 대부분 "목내 놓고 금강산가지 못하겠다, 종북세력이 제도권에 진입해서 안 된다."는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상적 안보심리적인 글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각종 인터넷 사이트는 평소에 하루 3,000만개 이상 댓글이 게재된다고 한다. 물론 대선기간에는 더 많은 댓글이 달렸을 것이다. 대선기간을 20일로 보면 줄잡아 6억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 그런데 6억개의 인터넷 댓글 중에 국정원 직원이 달았다는 대선후보관련 댓글은 달랑 3개다.

민주당, 검찰총장, 진재선 주임검사, 시국선언학생, 천주교단, 종북언론, 종북세력에게 묻겠다. 6억개의 댓글 중 3개의 댓글이 네트즌들의 대선투표 성향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민주당의 주장대로 원세훈 원장의 국정원 간부회의 지시에 의거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사이트에 댓글을 달았다면 대선기간 중 단 3건의 상대후보관련 글을 작성했을까? 그리고 그 글도 대형 포털이 아닌 미명의 일반사이트에 달았을까?

국정원장이 인터넷 댓글로 18대 대선에 개입하라고 했다면 이렇게 달랑 3건의 글을 올린 국정원 간부나 직원들은 원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어긴 직무유기, 징계 대상자들이다.

국정원은 대북 정보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의 사이버전술에 맞서 남한 내 종북, 친북세력들의 인터넷 여론몰이를 감시, 제재하는 심리전술도 막중한 업무라 본다. 따라서 국정원이 남한 내 수많은 종북세력들이 인터넷 공간에 암약, 활동하는 것을 위축시키는 임무야 말로 국정원의 본분이며 책무라 생각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선기간중이라 하더라도 국정원의 사이버심리전술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럼에도 이번 대선기간 중 국정원(북한과 보이지 않는 심리전)이 문재인(비전향장기수의 사위 노무현의 비서실장 출신), 안철수(박원순과 포옹)후보관련 댓글을 달랑 3개만 달은 것은 본분을 망각한 직무유기며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이다. 국정원 역할의 중요성과 그 책무에 비추어 보면 국정원이 지난 대선기간 중에 하루 백만개 이상의 종북세력 퇴치 댓글은 달았어야 했다고 본다.

굳이 설명하자면 국정원이 사이버상에 대북심리적 댓글을 달다보면 결국 정치성향으로 흐를 수 밖에 없으며 종북, 친북성향의 주요인사, 정치세력을 거론하다보면 자연스레 야당을 지목하고 특정지역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종북, 이적, 친북세력은 "야당과 특정지역", 위수 김동출신은 "운동권, 민노총, 전교조"라는 등식을 떠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시류다. 그런데 작금에 민주팔이들은 난도질한 국가정보원을 또 다시 국민들 앞에 까발려 인민재판, 마녀사냥을 하겠다고 으르렁대고 있다. 여기에 편승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대학생, 특정 종교인(종교가르침 망각)들은 시국선언까지 하고 나서고 있다.

또한 극단적 궤변론자들은 국정원 댓글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무효화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종북세력, 종북찌라시들도 진보(?)의 나발을 불어대는데 도대체 이들은 6억개와 3개의 숫자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지 모르겠다. 이들 꼬락서니가 바로 민주팔이 광대놀음에 똥 묻은 갓 쓰고 나선 꼴이다.

지금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을 규탄하겠다는 민주당 악다구니, 학생, 종교단체의 시국선언 등은 국정혼란, 정권타도의 불을 지피기 위한 불쏘시개다. 문제는 이를 막을 대항세력이 없다는 것이다. 법조, 군부, 노조, 전교조, 공노조, 경제계 등이 박근혜 대통령 편이겠는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이후 호남세력, 난신적자, 기회주의자 등의 득세에 밀린 친박 성향, 보수, 우파, 우국, 보훈단체는 모두 참담하게 고개 숙이고 제 살길을 찾아 나섰다.

이제 이들 우국단체와 인사들에게 희생, 결집, 충성, 투쟁을 요구할 명분과 염체가 없다.

그렇다고 11인회가 지금 점화되는 촛불난동을 막을 능력과 의지가 있을까? 새누리당 내에는 기회주의, 소장파, 야당첩자들이 우글거리고 일찍이 안철수와 교류하는 인사들이 있다. 김정은,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군세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그래서 저들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외로운 대통령의 안위와 정권의 안녕을 해치는 것은 비단 총구와 야당만이 아니다. 11개의 썩은 석가래가 오히려 반역의 불길에 마른 장작이 될지도 모른다.



가정예배

7월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방송 사장
- 라이즈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석TV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1. 결단의 마음

말씀 : 사도행전 18장 20-23절 찬송 : 358장

바울에게는 분명한 목적의식과 확신이 있었기에 시간을 낭비하거나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습니다. 사명자가 주변 사람들의 말과 상황에 의해 움직이면 사명을 완수하기 어렵습니다. 사명자의 삶에는 무수한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는 동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결단하는 마음이 있다면 마침내 사명은 완수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명을 완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 영적 도움

말씀 : 사도행전 18장 24-25절 찬송 : 384장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는 학문이 많은 자로 성경에 능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 뿐 더 자세한 복음으로는 진전할 수 없었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도 영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학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생하게 만난 생명의 능력으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도움으로 영적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3. 거듭난 생명

말씀 : 사도행전 18장 26절 찬송 : 214장

아볼로는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현장에 바울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아볼로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주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 태어난 자가 진리를 밝히 보고, 생명 있는 복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그리스도, 복음 자체가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4. 선을 이루다

말씀 : 사도행전 18장 27-28절 찬송 : 267장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영적 도움을 통해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 졌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정수를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증거했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언변과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효력을 갖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 성령을 받음

말씀 : 사도행전 19장 1-7절 찬송 : 184장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하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열두 사람쯤 되는 이들에게 안수하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말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임하시고 내주하시는 능력입니다.

6. 멈출 수 없는 복음의 외침

말씀 : 사도행전 19장 8-11절 찬송 : 366장

바울은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며 권면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비방했습니다. 복음 증거를 직접 박해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즉시 그곳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2년 동안 쉬지 않고 강론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두란노 서원'입니다. 바울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강론하고 복음을 외쳤습니다. 복음 증거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7. 치유의 역사

말씀 : 사도행전 19장 12절 찬송 : 336장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사람의 병이 떠나고 악귀가 물러갔습니다. 수많은 병이 놀라운 방법으로 치유되었습니다. 기적은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뤄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을 통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8. 진정한 신앙

말씀 : 사도행전 19장 17-18절 찬송 : 91장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진정한 신앙이 나타납니다. 오늘날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고고 있지만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보다 믿음 있는 것이 중요하며, 예수님을 통해 일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제자로서의 삶이 중요합니다. 진실된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9. 말씀에 기초한 신앙

말씀 : 사도행전 19장 19-22절 찬송 : 267장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마술책을 모아놓고 사람들 앞에서 불살랐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변화를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의지했던 마술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주님과 말씀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말씀을 통해 얻어집니다. 말씀은 진정한 신앙의 시금석이자 토대입니다.

10.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말씀 : 사도행전 19장 23-27절 찬송 : 348장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려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뜻하지 않은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그것은 데메드리오라는 세공업자가 일으킨 소동이었습니다. 당시 예베소의 주요 사업은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바울 때문에 이 사업에 지장이 생겼다며 사람들을 선동해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결심을 할 때 사탄의 공격이 뒤따릅니다. 장애물이 나타난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됩니다. 선한 결심은 귀한 희생을 통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11. 복음으로 인한 소동

말씀 : 사도행전 19장 28-32절 찬송 : 394장

데메드리오의 선동은 사람들은 "예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외치며 무섭게 폭도로 돌변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다니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 연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이 죽게 될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복음 전파는 영적 전쟁의 선전포고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소동케 합니다. 그러나 소동 때문에 좌절해서는 안됩니다. 복음으로 인한 소동은 복음 증거자가 거쳐야할 장애물의 일부일 뿐입니다.

12. 피할길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 : 사도행전 19장 33-41절 찬송 : 449장

하나님은 위험에 처해 있는 바울을 도우셨습니다. 한 서기장이 나타나 무리를 안정시키고 지혜로운 말로 설득한 것입니다. 서기장의 설득으로 사람들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흩어졌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서기장의 개입으로 위기를 넘긴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장애물을 넘도록 도와주시고 피할길을 주십니다.

13. 멈출 수 없는 복음증거

말씀 : 사도행전 20장 1-3절 찬송 : 88장

바울은 한 곳에 안주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려면 전 생애를 바친다 해도 부족했습니다. 복음증거는 결코 중단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그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지치지 않도록 능력을 입혀주십니다.

14. 복음을 들고

말씀 : 사도행전 20장 4-6절 찬송 : 502장

하나님은 바울에게 수많은 동역자들을 붙이셨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움직였고, 최선을 다해 바울을 섬겼습니다. 복음증거는 힘든 일이지만 동역자가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동역자들로 인해 복음 증거는 더욱 효과적으로 중단없이 이뤄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좋은 동역자들과 복된 삶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칼럼

유리드믹스

서영웅 목사
퓨리탄 장로교회
본지 상임이사



사람은 태어나면서 부터 오감의 감각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것은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그중에 하나만 장애가 있어도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소리는 기본적인 언어를 비롯해 음의 높고 낮음, 길고 짧음, 강하고 약함 등 다양한 표현을 하게 된다. 음악에 있어 선율과 리듬에 따라 여러 모양의 감성으로 몸동작을 하게 된다. 그러한 기쁨과 슬픔을 표현하는 몸의 율동을 음악적 용어로 유리드믹스 (Eurhythmics)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희망정국을 선포하고 출발하였다. 조직 임명에 어려움도 있었으나 안정된 희망정국으로 가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새 정부를 위협하고자 핵을 비롯한 장거리포, 로켓 발사 등 우리정부에 위협을 주어 왔으며, 개성공단 폐쇄 등 일방적인 남측과의 전화 단절을 하는 등 혼란을 조성해 왔다.

지난 6월 12일 남북 당국자 회담을 북한의 요청에 의해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회담 대상자의 격 문제로 무산되었다. 북한은 방종하기가 한이 없는 불량국가이다. 혈통과 가문이 중요한 것처럼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동행과 사귐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북한과 대화 할 수 없으며 대화를 한다 해도 그들의 양면성을 알아야 한다.

공산주의 사상 핵심은 선전선동과 실천이라는 양면성으로 변화할 수 없는 것이다. 대화를 통하여 어떠한 합의가 있다 하여도, 그들의 정책 이론인 실천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대도 왜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를 그토록 요망 하는지 알 수 없다. 대화는 상대와의 격이 맞아야 한다. 지성인이 무식하고 완패한자 와는 대화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폐쇄와 단절을 자행하는 공산집단들에게 더 이상의 미련을 갖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유리드믹스가 맞아야 한다. 선율과 리듬이 우리의 감정에 감각 되어야 흥이 나오고 몸동작이 있는 것이다. 박수는 감정이 기쁠 때 치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일방적인 박수는 일개 수령의 격을 높이기 위한 박수인 것이다. 감성이 없는 우직한자가 선율과 리듬을 듣는다 해도 그 음악을 감상할 수는 없는 것이다. 미술을 모르는 자가 그림을 본다하여 감상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사람은 각자의 전공에 따라 일하는 것이다. 앞으로 더 이상의 북한과의 대화는 정책적으로 잊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그들의 요구조건에 헤아릴 수 없는 지원을 했으나, 그것으로 핵을 만들고 남측을 위협하는 장거리 로켓 등으로 불안정국을 만들어 온 것뿐이다.

우리는 철저한 민주주의 사상 이념으로, 공산주의를 완전히 배격하고 섬멸 한다는 확고한 의지로 국민정신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 좌경화 되어 있는 법조계를 비롯한 정치인, 공직자, 산업노동인등 종편자 들을 철저히 가려내어, 사회혼란을 부추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자국의 발전과 번영만을 위해 국민 모두가 힘쓴다면 북한은 자연히 머리 숙여 문을 열 것이다.

앞으로 더 이상 남북회담에 연연하지 말고 북한을 잊어야 한다. 63년 전 6.25의 참상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스스로가 남과 북에 철의 장막을 치고 전혀 관심을 주지 말아야 한다. 정치가 북한을 의식하고 좌파 정치인 들을 의식한다면 성숙한 민주주의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무시하고 방종 하는 국가를 더 이상 생각 할 필요가 없다. 지난 전직 두 대통령의 햇빛정책을 내걸고 수조원의 국가예산을 지원 했으나, 불량성을 버리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북한의 제의에 대해, 이제는 대화를 거절 할 줄 아는 성숙한 국가로 가야한다.

세계경제국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민적 노력과 결속으로, 시장경제는 물론 소외계층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개방정책이 요구된다. 정부 각 부처를 기준 하여, 모든 조직이 건축설계 도면처럼 완벽한 업무 계획으로 재정적 누수는 물론, 청빈한 공직기관이 되도록 하여 국민적 찬사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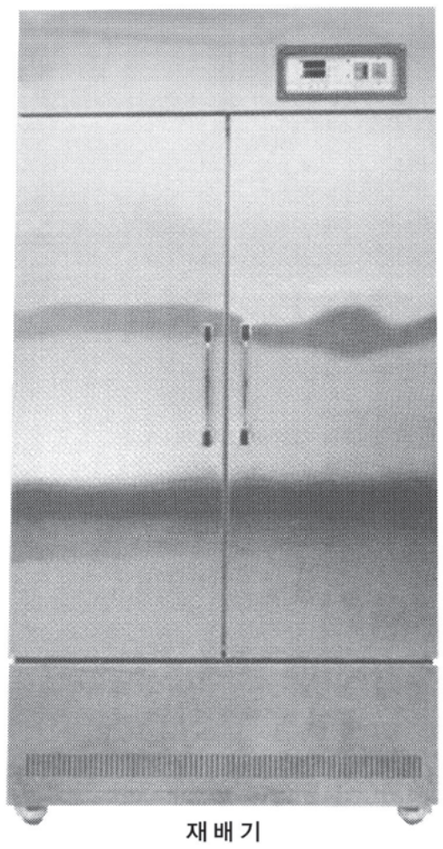
선율과 리듬이 사람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듯이, 국민 모두는 대통령이 지향하는 희망정국을 향해 유리드믹스의 국가 발전을 희망한다.

온천하 교회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최대의 희소식

특허등록 및 실용신안
★ 특허 제10-0617624 ∩형 배수관 콩나물 재배상자
★실용신안 제0351095호 침수식 콩나물 재배상자



침수식 콩나물 · 숙주나물 재배기 출시



재 배 기

● 특징 및 장점

※생산자
★ 익일 생산량 판매시 한 가정의 주 수입원이 된다.(일 6㎏ 이상)
★ 좁은 공간에서 작업 생산이 용이하다.(H 1980mm W 4410mm D 800mm)
★ 물의 소비량과 전기 소모량이 적어 생산비가 저렴하다.
★ 어느기관에서 검증해도 무독성이다.(독성 무검출)

※소비자
★ 생식용으로 맛과 영양이 탁월하다.(주식으로 사용가능)
★생주스로 갈아마실 시, 즉시 체온상승을 느낄 수 있으며 3일 후 몸의 변화를 느낀다.
★장기 섭생하면 식원병으로 인한 질병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통해 치료하신다. (식원병 : 변비, 관절병, 고혈압, 당뇨, 아토피, 비만, 독소 등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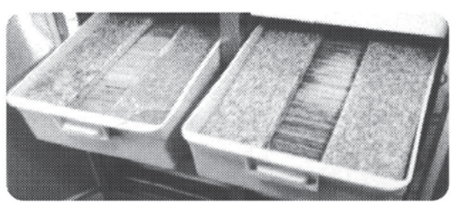
※사업자
★가정, 식당, 교회, 기도원, 요양원, 아파트 노인회, 미자립교회, 선교지 공공기관 공동체, 사회적기업, 해외수출 등등 많은 판매처를 대상으로 할 수 있어 수입을 극대화 할 수 있다.

● 하나님의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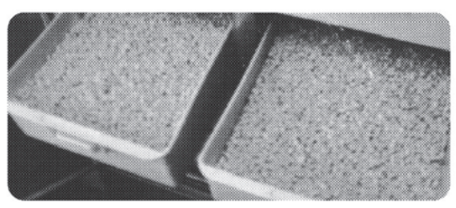


집사 최영식
주사랑교회

주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로 모든 음식에서 비롯된 (식원병환자) 질병과 허약함을 완전 해방시키는 특수(콩나물, 숙주나물) 재배기를 저로 발명케 하셨습니다.



▲알찬성장
· 3㎏의 콩이 9㎏의 회강석을 들어 올리며 성장
· 회강석 하중으로 콩나물의 웃자람억제, 알찬 성장 유도



▲빠른성장
· 재배 3일만에 콩나물 성장 완료, 1일 60㎏, 300g 기준 200봉지의 신선한 콩나물을 매장에서 매일 아침 생산

● 검 증

대전 소재 광음교회 이용덕 목사님(시무)
2년여에 걸쳐 '버리지 않는 전도지' 동영상을 You Tube에 올려 놓으심
교회주소 : 대전시 서구 도마 2동 316-7 / H.p : 010-4491-7757 / 010-9372-1163 / Tel : 045-525-1163

판매처 : 팜메이커(주) 대표 최영식
☎ 010- 8852-5766
파주시 교하읍 상지석리 162-7
딜러 모집
010-8852-5766



목포주안교회 설립30주년기념 감사예배 드려



77명이 은퇴식 및 임직식으로 100여개의 축하환 넘쳐



담임 모상련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목포주안교회(담임 모상련 목사)는 지난 15일(토) 오후 2시 전남 목포시 청호로 159 소재 본당에서 교회설립 30주년기념 감사예배가 진행되어 장로 1명, 권사 24명, 집사 1명이 은퇴식을 갖고, 장로장립 3명, 집사취임 2명, 집사장립 14명, 권사취임 19명, 명예권사 13명 등이 새 일군으로 임직을 받았다.

이날 담임 모상련 목사의 집례로 시작된 예배에 임봉기 장로(장흥중앙교회)가 기도를, 손영덕 목사(새소망교회)가 갈라디아서 6:7절을 봉독하고, 아멘찬양대의 찬양으로 백동조 목사(사랑의교회)는"누구에게 가장 많이 속으셨나요?"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은퇴식에서 채복남 목사(한일교회)가 장로은퇴기도, 이석배 목사(삭금중앙교회)가 집사은퇴기도, 김병영 목사(봉덕교회)가 권사은퇴기도, 담임 모상련 목사는 은퇴선언과 은퇴패를 증정하고, 백정석 목사(강진영광교회)의 격려사를 했다.

이어서 모상련 목사는 임직자들과 교우들에게 서약을 하고, 임직자들을 위하여 안수기도와 취임기도를 한 후 담임목사의 공포로 임직패 증정과 장로배지를 전달했다. 이어 김부영 장로(목포영락교회)가 장로에게, 김순천 목사(신안제일교회)가 집사에게, 최우식 목사(목포예손교회)는 권사에게, 이형만 목사(삼호교회)가 교우들에게 각각 권면하였으며, 백영규 목사(목포서노회 은퇴)는 교회설립 축시를 낭독하고, 최수인 목사(평강교회)의 축사와 송영문 장로가 광고를, 문 웅 목사(계산교회, 노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담임 모상련 목사는"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자는 목양 일념으로 1983년 목포주안교회를 설립하여 2013년 6월 15일 30주년을 맞이하여 목포에서 출석교인 3000명이 넘는 대형교회로 성장하면서 본교회의 남학예배당인 지 교회가 부흥성장하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하고 있는 목포주안교회 담임 모상련 목사는 열정적이고 목양일념이 투철하여 목회철학이 남다르다. 시작부터 30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은 것은"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하자는 데 한결같다.

모 목사의 목회철학 가운데 이미지는"초대교회가 소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았고, 구원 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 했던 것처럼 그 지역에서 좋은 소문이 나야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과,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데, 이러한 기관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좋은 소문이 나게 하는 이미지 목회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일환으로 목포시 노인정과 지역 경로당을 매주 방문하여 예배하고 격려 하고 매주 토요일에는 경로대학으로 지역민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여 극진히 대접하고 필요한 선물도 하고 있다.

지칠 줄 모르고 이 일을 하고 있는 목포주안교회와 모상련 담임목사와 성도의 이미지는 무엇인가? 교회의 이미지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이며 그래서 어린이가 많다. 또한 담임목사의 이미지는 깨끗하고 진실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설교자라고 했다.

그렇다 심는대로 거둔다는 목회철학에 모상련 목사의 헌신적인 노력과 사랑이 불타고 있기에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모 목사의 오른팔과 왼팔로서 충성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목포주안교회와 모상련 목사의 목회철학은 더 큰 교회로 세계적인 교회로 우뚝 설 것이다.



함께하는교회
설립42주년, 헌당예배 드려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총회 함께하는교회(담임 이상재 목사)는 지난 9일(주일)오후 3시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소재 본당에서 설립 42주년 맞아 헌당감사예배를 드렸다.

담임 이상재 목사 집례로 광명시 기독교 연합회 총무 강문종 목사(광산교회)가 기도를, 본교 연합성가대의 찬양으로 총회장 황수원 목사(대신총회)는"말씀 순종으로 구원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담임 이상재 목사의 봉헌식사가 있었으며, 건축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수 장로가 건축경과 보고와 헌당교독문, 봉헌기도, 봉헌공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이은규 목사(안양대학교 총장), 최순영 목사(부총회장, 두란노교회), 양기대(광명시장), 손인춘(국회의원), 김종섭(광명경찰서장), 등이 축사를, 고창곤 목사(증경총회장, 영락교회), 이재옥 목사(직전 유지재단 이사장, 화평교회), 박상경 목사(합동총신총장, 총신교회) 등이 격려사를, 함께하는교회 남성중창단의 축가에 이어 담임 이상재 목사가 양기대 광명시장에게 쌀나눔기증식을 가졌으며, 인사 및 광고가 있은 후 총회장 황수원 목사 축도로 마쳤다.



담임 이상재 목사

축 42주년 및 한국경목총회 총회장 당선

www.cmno.org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배중심의교회 The Communion Presbyterian Church

함께하는교회

예배안내

요일	집회	시간	장소
주 일	1부 예배	오전 7:00	지하1층 중예배실
	2부 예배	오전 9:00	3층 본당
	3부 예배	오전 11:00	3층 본당
	오후예배	오후 4:00	3층 본당
수 요	오전예배	오전 11:00	지하1층 중예배실
	저녁예배	저녁 7:00	지하1층 중예배실
금 요	기도회	저녁 9:00	3층 본당
새 벽(월-금)	새벽예배	새벽 5:00	지하1층 중예배실
주 일	교육	시간	장소
	영아부	주일 오전 11:00	1층 영아부실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지하1층 유치부실
	유년부	주일 오전 11:00	지하1층 유년부실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지하2층 초등부실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지하1층 중예배실
	청년부	주일 오후 2:00	지하2층 초등부실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지하1층 중예배실

찾아오시는 길



7대 비전!

1.VISION02030(2020년에 3,000명 목표)
2.전교인제자화로 평신도를 깨우는 교회
3.성도의 위로와 치유가 있는 교회
4.지상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5.나눔과 섬김을 생활화하는 사랑이 있는 교회
6.예배를 통한 영적성장과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7.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참여하는 팀 사역이 있는 교회



이상재 담임목사



우편 : 423-060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864 TEL.02-898-0539-40 FAX 02-2681-0540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포주안교회 설립 30주년

교회사명선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설립하여 주신 주님의 교회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1.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갑니다.
2. "올바른 예배"
"올바른 예배" 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삶이 회복되어 주님께서 주신복을 누립니다.
3. "네 이웃을 네몸같이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며 행복하게 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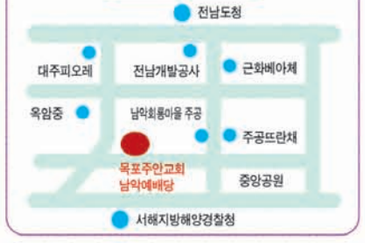


모상련 담임목사

예배안내

주 일	낮예배	1회	오전 7:30	3,4층 대예배실
		2회	오전 10:00	
		3회	오전 11:30	
	저 녁 예 배		오후 7:00	
수요일	수 요 예 배		오후 7:30	
금요일	금 요 예 배		오후 9:30	
토요일	청년대학부예배		오후 5:00	
매 일	새 벽 예 배		오전 5:00	
주 일	유치부	1회	오전 9:30	2층 새롬반실
		2회	오전 11:30	
	유초등부	1회	오전 8:30	3,4층대예배실
		2회	오전 10:10	2층 영산강홀
	중 등 부		오전 9:00	2층 영산강홀
	고 등 부		오전 11:10	2층 영산강홀
	영 어 예 배		오후 1:30	5층 두란노홀

찾아오시는 길



섬기는 분들

부목사	정동현 모정선 송호성 모성온
파송선교사	임재선 김은미 김미경 안윤기 김진희
협동목사	장장화(은퇴) 서기욱
전도사	추정희 배순단
교육전도사	송선택
시무장로	고재련 송영문 천은상 정승안 이현필 주종필 김정서 김영규 김학진 김선호 원복희(휴직)
은퇴장로	노남규
협동장로	문환용 이병화

찬양대

찬양대	지휘	반 주
할렐루야	고창현	장주영
아멘	한문희	박애숙
셀라	모정선	최운정
임마누엘	문정안	정다솜
글로리아	한문희	최운정
유빌라테	고 성	이지연



전남 목포시 북항동 1671-15(북항주택단지) 전화 : (061)272-4908, (061)278-0692 팩스 : (061)278-0693

10 · 4는 '적화통일전선공작' 총화



논설위원 백승목 대기자

국가정보원이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기밀에서 해제해 국회 정보위원회 의원들을 통해 전격 공개한데 대하여 민주당은 "국기문란(國基紊亂), 항명이며 쿠데타, 국정원해체" 등 거칠게 반발하면서 공격의 화살을 청와대에 돌리는가하면, 장외 촛불집회 등 강력한 대여투쟁을 경고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러한 반발은 노무현의 반역음모가 백일하에 드러나 김대중의 정치적 적자(嫡子)로서 친노(親盧)를 배경으로 한 정치기반이 순식간에 무너질 위기감에서 비롯된 반발을 위한 반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먼저 10.4선언 채택의 경위를 보면,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길'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라"는 김대중의 등쌀에 못 이겨 임기를 4개월밖에 안 남긴 노무현이 방북을 감행,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뒷걸음질 치지 못하게 쐐기를 박아 놓자"는 불순한 의도와 '공동발표문' 정도로 하자는 김정일에게 6.15선언과 대등할 수야 없지만, 노무현의 체면을 보아 6.15의 후속선언으로 해 달라고 통사정을 한 결과로 탄생한 기형아(畸形兒)가 10.4선언이다.

내용면에서도 주적(主敵)용어 말살, 2012년 까지 전시작전통수권 환수, 전시 (미군자동개입) 인계철선 역할을 하고 있는 미 2사단 후방배치추진, 서울에서 외국군대 철거(연합사해체), 작계 5027 (사실상)폐기, 군대의 (민족군대로 전환)체질개선, 간장 큰 골칫거리인 NLL무력화 시도, 재임 5년 동안 6자회담 등 국제무대에서 '북 핵 입장을 지지' 미국과 싸워왔고 북측 입장을 변호하는 등, 노무현의 (투쟁?)업적을 과장 부각하기에 급급하였다.

형식면에서도 북측에서는 노동당대남담당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야태위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대남공작총책 김양건이 단독으로 김정일을 보좌 입회한데 반하여, 우리 측에서는 노무현을 위시해,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권오규, 통일부장관 이재정, 국정원장 김만복,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백종천 외에 안보정책비서관(기록) 조명균 등 5명이 배석함으로서 노무현이 관계자를 대동하여 북의 최고위에게 사업보고를 하는 형식이 돼 버리고 말았다.

대화의 성격은 구체적인 내용 협의 과정에서 정주영, 정몽헌, 현정은 등 '현대일가'를 빈번하게 언급, 소위 6.15선언의 배경이 현대를 대북사업에 깊숙이 끌어 들여 김대중은 대북 접근 통로로 삼고 김정일은 핵, 미사일 개발에 소요 되는 막대한 군비조달용 외화 획득과 동시에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상층부통일전선공작의 일환으로 악용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따라서 노무현으로서는 시종 비굴할 정도로 저자세일 수밖에 없었으며, 노무현을 수행 회담에 배석한 김만복, 이재정, 백종천, 권오규 등에게는 추임새를 넣고 김정일에게 아첨을 떠는 외에 뚜렷한 역할이 있을 수 없었다. 그나마 기록관으로 배석한 조명균 비서관이 (민감한 대목에서) 녹음이 안 되는 실수(?)는 있었을망정 제 구실을 다 했다고 본다.

이를 보다 쉽게 설명하자면, 강력한 적(敵)=미제(美帝)를 타도하기 위해 지하당 또는 종속적 비합법전위대를 연결고리로 반미(反美)에 이해를 같이 하는 세력(남한 내 종북/주사파/각계각층인민대중)과 연대연합(連帶聯合) 방식으로 일시적인 동맹(同盟)을 통해서 공동의 적(敵)을 포위, 섬멸 후 전과를 이용, 지금까지 동맹을 맺었던 '제2의 적=남한'을 일시에 전복 타도하는 전략이 공산권이 전가보도처럼 여기는 통일전선인 것이다.

통일전선은 적대국의 정권수뇌부와 의회 등 상층부와 내통/결탁(內通/結託)하여 법률적 제도적 장치해체에 주안을 둔 상층부통일전선과 노동자농민을 주력으로 (진보적)청년학생과 지식인을 포섭세뇌, (양심적) 종교인과 자본가를 이용 각계각층 광범한 군중(범대위/촛불폭도)을 동원 인민무장봉기로 정권타도와 체제전복에 나서는 하층부 통일전선이 있어 상층부와 하층부 통일전선을 교묘하게 배합하는 것이 이른바 통일전선전략이다.

민주당 정문헌 의원 고발로
일반문서로 격하
비밀해제로 세상에 드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진보적(進步的)' 청년학생과 지식인이라 하면, 북괴의 촉수에 걸려들어 포섭 세뇌된 적화통일 전위대를 추켜세우는 용어이며, '양심적(良心的)' 종교인과 자본가는 북괴 대남적화통일전선에 적극동조 참여한 친북용공세력을 일컫는 용어에 불과하다.

노무현이 회담 중 "나도 역사적으로 제국주의역사가 사실 세계 인민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마음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제일 큰문제가 미국입니다."라면서 "그 점에 관해서 저항감도 가지고 있고, 새로운 기회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서 비록 운동권수준이기는 하지만 반미의 동지적 유대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노무현은 이에 한술 더 떠서 "동북아시아에서 앞으로 평화를 해롭게 할 국가가 어디냐, 평화를 깰 수 있는 국가가 어디냐 했을 때 미국이 일번으로 제일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지목하고, 그 다음은 일본을 지목하고 다음을 북측을 지목했다"는 여론동향까지 인용하면서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대통령 보고서]까지 김정일에게 넘겨주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회담장에서 김양건의 역할이다. 김양건은 김정일의 발언내용과 수위,그리고 답변과 일정에 이르기까지 즉석에서 보좌(=調律)하면서 김만복이나 이재정, 백종천 등 수행원은 안중에도 없이 노무현과 김정일 정상 간 발언에까지 끼어드는 무례(?)를 범할 정도로 회담을 전반적으로 주도해 나갔다는 사실이다.

이로써 김정일(김정은)이 그토록 절실하게 여기는 6.15가 대북사업을 미끼로 현대와 남한 당국자를 옭아매어 형제당과 우방의 국가원수 간에만 있을 수 있는"최고위급 상봉(相逢)과 회담(會談)"이라는 시혜(施惠)를 베푸는 대가로 김대중이 북에 대한 내밀한 부채(負債)의식을 이용 연방제(적화)통일 약속을 구체화 한 것이며, 이를 실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인 NLL 무효화를 이끌어 내기위해 잡다한 구상을 엮어 넣은 것이 10.4선언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화록이 공개되면서 여실히 드러난 10.4선언의 굴욕적 반역성과 노무현의 형법상 내란, 외환, 국헌문란, 간첩, 여적 중죄와 국군통수권자로서 군 형법상 [반란], [간첩] 국가보안법상 정부참칭 반정부단체의 목적수행 범죄적 실상에 대하여 국민 앞에 석고대죄(席藁待罪)는 못 할망정 촛불폭동을 선동하고 국정조사로 호도하려는 간계를 부리고 있다는 현실이다.

이미 공개 된 대화록을 통해서 재구성해 본 10.4회담은 정상회담이라기보다는 노무현의 반미투쟁성과보고와 NLL무효화를 위한 적화통일전선공작 총화를 방불케 한 반역놀음이었음이 자명(自明)해 졌다.

다만, 주목되는 것은 제1야당 민주당이 친노종북과 결별, 재활(再活)의 길을 걷느냐, 종북세력과 내통결탁 자멸(自滅)을 재촉하느냐는 대한민국 국운과도 직결돼 있는 중대사임을 환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소위 30년간 열람을 금지토록 돼 있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정문헌 의원의 발언을 고발한 민주당의 도움으로 고검에 의해 '일반기록물'로 격하되고 국정원 내부규정에 의해 비밀이 해제됨으로서 햇빛을 보게 됐다는 역사적 우연이다.

논설위원 백승목
hugepine@hanmail.net

6 · 25 누구의 책임인가

아~ 어찌 잊으랴!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3년이 되었다. 연초에는 북한의 핵실험 감행과 개성공단 폐쇄 등 북한의 잇단 도발 위협으로 남북 관계가 어느 때보다 경색되기도 했다. 반세기를 훌쩍 넘겼지만 우리에게 6 · 25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셈이다.

우리 국민들은 6 · 25 한국전쟁을 누구의 책임이라고 인식할까? 북한의 전쟁 위협, 통일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 6 · 25 한국전쟁 63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우리 국민 1,234명에게 6.25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6 · 25는 북한 책임' 46%

먼저 6 · 25 한국전쟁의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북한이라는 응답이 46%로 가장 많았고 '남북한 모두'가 17%, '남한' 5%의 순이었다. 이밖에 냉전 당사자인 '미국에 책임 있다' 6%, '소련'은 4%였으며 '일본, 중국 등 주변국가'에 책임 있다는 의견은 12%였다.

6년 전인 지난 2007년 조사 때에 비해 '북한에 책임 있다'는 의견이 13%포인트 크게 늘어난 반면, '남북한 모두에 책임 있다'는 의견은 13% 포인트 줄었다. 북한에 책임 있다는 응답은 60세 이상에서 63%로 가장 많았고 30대에서 34%로 가장 적었다. 20/30대에서 남북한 공동 책임이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20대 절반, 6 · 25 언제?

6 · 25 전쟁이 언제 발발했는지 연도를 물은 결과 1950년이라고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가 66%, 모르는 경우가 34%였다. 6 · 25 전쟁 연도를 모르는 사람은 여성이 43%, 남성이 25%였다. 연령별로는 20대(45%)와 60세 이상(43%)에서 모른다는 사람이 많았다.

'전쟁 가능성 없다' 61%

북한이 실제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물었다. '많이 있다' 9%, '어느 정도 있다' 26%로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의견이 35%였다. '별로 없다' 43%, '전혀 없다'는 18%로 전쟁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은 61%였다.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계속된 위협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이나 전쟁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약화됐으며 6년 전 조사(51%)에 비해서도 전쟁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16%포인트 감소했다.

'남한 군사력이 우세' 56%

남북 간 군사력 차이에 대해서는 '우리 군사력이 우세하다'가 56%, '북한 군사력이 우세하다' 30%로 우리 군사력이 우세하다고 보는 의견이 더 많았다. '남북 간 군사력이 비슷하다'는 의견은 10%였다.

6년 전과 비교하면 '우리 군사력

6 · 25 한국전쟁,
북한 책임 46% 남한 5%

우세'가 43%에서 56%로 13%포인트 늘었다. 반면 '북한 군사력 우세'는 45%에서 30%로 15%포인트 줄었다. 우리 군사력이 우세하다는 의견은 20대에서 가장 많았고 30대에서 가장 적었다. 30대에서 '비슷하다'와 북한 군사력 우세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점진적 통일' 60%

마지막으로 남북통일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통일은 10년 후쯤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60%로 가장 많고 '통일보다는 현재대로가 낫다' 19%, '통일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18%로, 점진적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북한 핵실험과 개성공단 진입 차단 직후인 지난 4월 8~9일 조사에 비해서는 '통일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8%포인트 늘었다. 현재 남북 관계는 경색 국면에 있지만 올해 초에 비해 핵실험이나 도발 위협은 덜한 상태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통일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은 6 · 25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인 60세 이상 고연령에서 32%로 가장 많았다. 통일보다는 현재대로가 낫다는 의견은 20대에서 가장 많았고 남성(14%)보다 여성(21%)에서 많았다.

지저스타임즈 언론부흥사협의회

본 신문방송 언론부흥사협의회 단체는 기독언론단체로서 한국교회와 기도원 개 교회, 농어촌 선교에 사명을 가진 분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하며 부흥사로뜻을 같이 할 것이며,
본 단체는 보수적이며 건전교단에 속한 사역자들로서 초교파 부흥사단체이다. 이 시대의 사명감당을 위해 뜻이 있는 사명자라면 본 단체는 크게 환영하며 회원으로 맞이합니다.



총재 이효은 목사 (화정충현교회)
대표회장 정기남 목사 신문방송 대표이사
부총재 정기환 목사 (전원중앙교회)
부총재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부총재 정대성 목사 (강남복된교회)
부총재 곽동훈 목사 (행복의집원장)
연수원장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사무국장 곽영민 목사 (등불교회)
강사단장 박수영 목사 (행복샘교회)
상임회장 홍항표 목사 (한경총 사무총장)
상임회장 박동호 목사 (벧엘교회)
상임회장 권세능 목사 (주천성교회)
상임회장 김동기 목사 (백석대평생교육원)
상임회장 최낙현 목사 (산성그리스도의교회)
자문 박양우 목사 (중부권지사장)
자문 이범성 목사 (한기범대표회장)

자문 허 식 목사 (한경총 직전 총회장)
자문 최순길 목사 (논설위원)
자문 서영웅 목사 (퓨리탄대학총장)
자문 박한규 목사 (수도권 은목교회)
실무회장 여현관 목사
공동회장 주은총 목사 (은총기도원원장)
공동회장 임요한 목사 (문화부 부장)
공동회장 정성준 목사 (벧엘교회)
공동회장 이기학 목사 (포항지사장)
공동회장 김명옥 목사 (부흥사관학교 교장)
공동회장 전진성 목사
공동회장 강신숙 목사 (강신숙예술신학원)
공동회장 우슬초 목사 (주성청각장애인교회)
공동회장 임해숙 목사 (서울방주농아교회)
공동회장 김부경 목사
회계 유윤주 목사 (조에 교정선교회)
총무 김홍중 집사

지저스타임즈 홈페이지 http://www.jtntv.kr
경기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3(대운빌라 202호)
대표전화) 070-8230-0034, 032-672-3031(팩스겸용)
대표이사:010-5468-6574, 사무국장:010-2080-0651
e-mail: jtpress@hanmail.net 웹하드: I.D-cpjkr, P.W-km1122

웨신, "표준총회 명품목사"주제로 하계수련회 개최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총회장 이재갑 목사)가 지난 달 2박3일 동안 경북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 (주)한화 호텔리조트 백암지점에서 하계수련회를"표준총회 명품목사"라는 주제로 화기애애한 가운데 마쳤다.

웨신총회는 10일(월) 오후 5시 남궁열 목사(호산나교회)인도로 개회예배를 시작 회록서기 김안식 목사가 기도를, 남부노회장 강덕원 목사가 출3:1~10절을 봉독하고, 영광교회 헵시바찬양단의 특송으로 부총회장 장창윤 목사는"명품목사 전환점과 출발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총무 신언창 목사의 광고 및 인사가 있었다.

2013년 웨신총회 하계세미나에 '전국 21개 노회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로를 존중하면서 친절과 화합으로 서로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고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웨신총회의 구성원이 되기를 기원' 한 후 증경총회장 임칠환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날 저녁 연세대학교 김학철 교수의 특강에서"누가복음서 새롭게 읽기"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김 교수는 '누가복음서를 재인식하자는 데 있다며 누가복음서의 중요성과 과제, 역사가 누가, 신학자 누가, 목회자 누가와 배운 바의 확실성 등의 각주를 정' 한 열강으로 많은 감동이 있었다.

11일(화) 하민국 목사(서부노회장)의 인도로 새벽예배에서 김춘택 목사(수도노회장)의 기도, 심순범 목사(동서노회장)가 성경 창3:1~7절을 봉독, 박우재 목사(웨민노회장)는 '목사 아담, 성도 하와'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대회고문 이 규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낮 시간은 각 노회별 자율시간을 가진 뒤 총회장배 탁구, 당구 대회와 노회대항 윷놀이가 진행되어 축제의 장이 되었다. 이어 총무 신언창 목사는 총회 드림빌딩의 시간을 통하여 총회의 비전과 정책에서 교회의 발전과 위상을 확인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이날 저녁 집회에 강사로 나선 조강수 목사(영광교회, 총회서기)는 스가랴 4:6절 말씀을 인용 "하나님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묵은 땅을 기경하고 메마른 땅, 심령을 적셨다' 며 목회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깨닫고, 전적인 하나님 중심만이 목회의 성공임을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목회자는 기도를 많이 할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을 가지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성령충만이라면서 목회자는 물론 성도들까지도 성령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12일(수) 새벽 폐회예배에서 전진구 목사(서울노회장)의 기도, 양덕심 목사(경성노회장)가 성경봉독(빌3:17~4:1)하고, 허성인 목사(부총회장)은"주 안에서 삽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설교하고 대회 고문 이홍규 목사 축도로 마쳤다.

한편 하계수련회 동안 해즐넛 향으로 분위기를 돋구어준 회계 이영풍 목사의 사모가 준비한 영남카페에 목회자 사모들이 자원봉사에 나서 수련회에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차와 음료수로 3일 동안 화기애애한 한 자리를 제공했다.

또한 이번 웨신총회 하계수련회는 서부노회가 새롭게 조직되어 자리를 같이 했으며,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의 교수와 직원, 동문이 웨민노회를 구성하여 참석함으로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아울러 웨신총회는 3013년 하계수련회를 기점으로 변화와 화합으로 비전을 갖고 9월 정기총회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각자의 목양 지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웨신대학과의 발전협력관계, 총회의 위상 높아져



피종진 목사 7월 국내·외 성회 일정



피종진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6
010-5255-7777
jongjin7777@gmail.com
TEL : (02)3411-9191
FAX : (02)401-7770

1(월) 오후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원장 국해현 목사) ☎(031)947-0091 주최: 한영신학대학교(총장 한영훈 목사)
	제178차 해외성회(178th Overseas Assembly)
1(월)~ 4(목)	미국(U.S.A) Nyskc Movement 2013(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 HQ 뉴욕) 장소 : 미국 아리조나 피닉스 Northern Arizona University 대강당
6(토)~ 7(주)	미국(U.S.A) 캘리포니아 에나하임제자교회(이선자 목사) ☎(714)220-7660
11(목)~12(금)	양수리수양관(원장 피영민 목사) ☎ (031)772-6015 주최: 예사랑부흥협의회(대표회장 조유식 목사)
14(주) 오후	일산 능력비전교회(지미숙 목사) ☎ 010-6366-2548
15(월)~17(수)	서울 임마누엘교회(최옥순 목사) ☎(02)436-1777
19(금) 오전	한국기독교부흥지도자회(대표회장 이종만 목사) 장소: 서울 성락교회(원로 박태희 목사, 담임 지형은 목사) ☎(02)467-8105
19(금)~21(주)	태국(Thailand) 16개 교회 연합성회(대회장 신홍식 선교사) ☎ 661-171-9106
22(월)~24(수)	충주 금식수양관(원장 김승자 목사) ☎(043)853-3990
27(토) 오후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원장 국해현 목사) ☎(031)947-0091 주최: 21C세계부흥사협의회(대표회장 성경모 목사)
29(월)~8.1(목)	서울 강남생수기도원(원장 윤순덕 목사) ☎(02)2683-4202

대한기독사진가 협회 비전

차원 높은 대기협 사진사이트와 영상선교의 질을 높여갈 방침



대한기독사진가협회(이하-대기협)은 지난 달 이틀간 전북 임실군 운암리 동신교회 수양관에서 60여명의 회원이 모인가운데 2013년 정기총회를 갖고 제비/김종욱 목사를 대기협 신임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했다. 이날 신임회장 김종욱 목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직전회장 엄영수 목사님이 애쓰고 힘써서 대기협을 성장시켜 놓은 이 토대위에 최선을 다해 협회발전과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위하고 오프라인, 온라인을 통하여 차원 높은 작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대기협은 기독교 사진 사이트로서 다른 사진사이트와는 다른 차별화된 사이트와 협회로 거듭나기 위해 기독갤러리와 묵상갤러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아름다운 자연과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내시고자하는 뜻을 사진을 통해 구현한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아울러 사진을 통해 영상선교의 질을 높여나가며 해외에 있는 선교지를 알리는데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독사진을 통해 기독교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대기협 사업을 진행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상중 목사(전북지회장)의 인도로 1부 예배를 진행하여 김종욱 목사(부회장)는 삼하 23:13~17절 말씀을 중심으로"존중되어지는 협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으며 전전 회장 이진호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어 회장 엄영수 목사의 사회로 정기총회가 시작되어 서기의 회원점명이 있은 후 개회가 선포되고 각 부 보고에 이어 임원선출에 들어가 고문 : 엄영수 목사, 이진호 목사, 이상중 목사, 신임회장 : 김종국 목사, 부회장 : 이상철, 신철이, 김윤경, 강대일, 나순자, 전영란, 등이며, 총무 : 곽완근 , 김종민 목사, 회계 : 손금숙, 운영위원 : 천현옥 김갑식 정기남 박종욱 윤봉원 장성문 양은식 조영숙 조경춘 김종심, 감사 : 장학규 류병택 목사 등을 선출했다. 다음날 10일은 족구 한마당과 담양 메타세과이어 길에서 모델 촬영을 가졌다.

소진우 목사 2012년-2013년 성회일정



담임목사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8753-7179
교회 : 02)3391-9676(대)

· 라이즈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석TV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CTS 칼럼리스트
· 예복교회 담임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1월
2-4 천성교회(김영목사)
6 오산리금식기도원(조희연원장)
9-11 온사랑교회(최태식목사)
13 한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6-18 신성교회(정대호)
19 성산수양관(윤호균원장)
22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23-26 광은기도원(김한배원장)
29 예제교회(류준모목사)
30-1/2 흰돌교회(송우종목사)

2012년 2월
6-9 감림산기도원(이옥란원장)
12 예수소망교회(신동식목사)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13-15 신갈장로교회(이광수목사)
16 성산수양관(윤호균목사)
19-22 평강교회(박성주목사)
27-29 증평평강교회(고영철목사)

2012년 3월
축복대심방
5-7 수원교회(강성우 목사)
18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22 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2012년 4월
2-4 하예성교회(강대종목사)
5-6 성소기도원(박정연원장)
9-10 정기노회
15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16-18 동탄제자들교회(이석원목사)
23-25 주사랑교회(김주환목사)
27 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2012년 5월
31-3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7-9 우리교회좋은교회(이평찬목사)
13-16 성신교회(손양도 목사)
21-24 광음교회(김동기목사)

2012년 6월
3-6 주찬양교회(윤병구목사)
7 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10 천보산기도원(유택진목사)
12-14 베데스다교회(허영혜목사)
17-30 2주연속심야대성회(예복교회)

2012년 7월
2-5 사명자영성원(송요섭원장)
8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9-10 신학생여름세미나
23-26 천문기도원(최정숙원장)

2012년 8월
5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8-10 한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1-16 광은기도원(김한배원장)
20-23 감림산기도원(이옥란원장)
27-30 성산수양관(윤호균원장)

2012년 9월
2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3-5 주우리교회 (이황규목사)
10-12 새암교회(김병식목사)
17-20 교단총회
24-26 일신제일교회 (천창대목사)
30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2012년 10월
8-10 신일교회(정병수목사)
12 한얼산기도원 (이영금원장)
15-16 정기노회
19 성소기도원(박정연원장)
22-25 진리교회(송대규목사)
26 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28 천보산기도원(유택진목사)
29-31 김단지역기독교연합성회(회장:한신현목사)

2012년 11월
3 주향기교회(김홍수목사)
5-9 선교지방문
11-14 동서울교회(라계동목사)
19-21 경천교회(이원경목사)
25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26-28 예수비젼교회(이승엽목사)

2012년 12월
2-7 부흥성회(예복교회)
10-15 필리핀선교대회
17-19 예원교회(한규식목사)
23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21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2013년 1월
1-3 과천예복교회(노영수 목사)
7-9 장암성결교회(강석전 목사)
10 강남금식기도원(김성광 원장)
14-16 길산교회(김동한 목사)
20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1-23 참좋은교회(기갑상 목사)
28-30 청남교회(조성민 목사)

2013년 2월
1 한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5 참사랑교회(강신조 목사)
4-7 감림산기도원(이옥란 원장)
11-14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17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8-20 광정성결교회(남봉우 목사)
21 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22 임마누엘기도원(이수영 원장)
25-28 비젼교회(조정현 목사)

2013년 3월
축복대심방
17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13년 4월
1-3 광릉내교회(김상용 목사)
8-11 성산수양관(윤호균 원장)
14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5-16 정기노회
22-2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9-1 주우리교회(이규황 목사)

2013년 5월
3 C채널 TV예배
6-8 참사랑교회 (강신조 목사)
11 주향기교회 (김홍수 목사)
13~15 신일교회 (정병수 목사)
17 갈멜산기도원 (임예제 원장)
19~6월1 2주 연속 특별 심야기도회

2013년 6월
3-5 한교연합수련회(집회)
10-13 온사랑교회(최태식 목사)
14 오산리금식기도원(국해현 원장)
17~19 나눔애교회(최종덕 목사)
20-21 국내미자립교회 순방
24-27 진주기도원(김신홍 원장)

2013년 7월
1-5 신학생여름특별세미나
7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7-20 2주연속특별심야기도대성회 (예복교회 : 담임 소진우 목사)
22-24 은광교회(추영석 목사)

2013년 8월
4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5-8 금산임마누엘수양관(이수영 원장)
12-15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19-22 감림산기도원(이옥란 원장)
26-29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